2019년 통권 제26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6, 2019.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redacted]

방정엽 [redacted]
송태정 [redacted]
송화정 [redacted]
안순금 [redacted]
오송규 [redacted]
유예빈 [redacted]
윤대라 [redacted]
이명자 [redacted]
이승훈 [redacted]
이우정 [redacted]
이진숙 [redacted]
이철량 [redacted]
이한배 [redacted]
임진성 [redacted]
임 호 [redacted]
임희성 [redacted]
정미현 [redacted]
조병완 [redacted]
최창봉 [redacted]

전북회화

2019년 통권 제26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박지예
편집위원 박지예, 송태정, 송화정, 유예빈, 임희성
전북회화 2019년 통권 26호
발행일 | 2019. 12. 10
[redacted]
기획, 제작 | 프린팅세븐 T. 287-[redacted]

전북회화

이천십구년 12월

제26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 -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 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 ,산동)
2004. 6	정기모임 :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 회화회지(회화회 부산, 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 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 (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 (송현성)
2013. 12. 10~15	정기(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모임 (신입회원 : 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전시 (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 (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 (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모임
2015. 12. 10~29	정기전시(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전시 (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8	정기전시 (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19	정기 전시회 (갤러리 누벨백)
2018. 11. 13~22	정기 전시회 (누벨백 미술관)
2019	신입회원 (김준근 박종갑 오송규 윤대라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조병완 최창봉)
2019. 1. 3~4	동계 워크샵 (여수)
2019. 5. 7	정기모임
2019. 7. 3	좌담회 준비회의
2019. 7. 16	좌담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 방안 모색)
2019. 9. 23	회의 (30주년 기념 전시 및 회화회지)
2019. 10. 2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19. 11. 1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C.O.N.T.E.N.T.S.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전북회화회 30주년기념 좌담회 | 글 편집부
06

특별기고
14 미술관은 무엇을 실천하는가 | 글 김광희
18 옹기다단가마를 통한 그을음과 먹의 시각화 | 글 고은지
22 당신의 작품을 보는 눈-머리에서 가슴까지 | 글 장춘실
28 작품 한점으로 행복했던 지난날들 | 글 김용희
30 전북회화회 30년을 함께하며 | 글 정미현

전북전시리뷰 | 글 송태정
31 한옥과 자연, 그리고 현대 입체조형작품
32 이세현 초대전
33 먹빛으로 보는 오늘의 삶
34 수묵정신-산수화의 현대적 계승
35 모악산 자락선 채색하지 않은 수묵의 세계가

전북회화회 회원 전시
36

나의작업노트
38 김근미
39 김준근
40 박성수
41 박종갑
42 박지예
43 방정엽
44 송태정
45 송화정
46 안순금
47 오송규
48 유예빈
49 이명자
50 이승훈
51 이우정
52 이진숙
53 이철량
54 임진성
55 임 효
56 임희성
57 정미현
58 조병완
59 최창봉

여적
60 편집후기 | 편집부
61 회원주소 | 편집부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6. 2019. ▸▸
전북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방향 모색

전북회화회 30주년 기념 좌담회

진행 : 박지예 (전북회화회 회장)
기록 : 유예빈 (전북회화회 총무)
일시 : **2019. 7. 16** (화)
장소 : 파인트리 세미나실

전북회화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북회화회의 그간 활동을 점검하고
나아가 전북미술의 현재의 흐름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용면(조각가), 조영대(서양화가), 박종갑(한국화가), 정미현(한국화가),
이철량(한국화가)께서 참여해 주셔서 전북미술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

박지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회화회 회장 박지예입니다. 전북회화회는 지역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 전시를 해온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전북회화회의 취지는 작가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창작과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미술문화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좌담회의 취지는 전북회화회가 3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과 더불어 전북회화회의 발전에 큰 도움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 세분(강용면, 박종갑, 조영대 작가님)과 회원이신 이철량, 정미현 작가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회화회는 변화하는 시대흐름과 지역환경을 반영한 전북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좌담회를 통해 전북회화회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합니다. 흔쾌히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북미술 현황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전북미술의 발전을 위해 작가들이 가져야할 의식은 무엇일까요?

강용면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은 세계 16위 정도에 비해 한국의 세계적인 작가는 서도호, 김수자, 이불 등 10명정도입니다. 한국화가 우리의 정서, 철학을 담았을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양적 교육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국화 작가들이 우리의 정서를 담아 자부심을 갖고 작업하면 언젠가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면(조각가)

작업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필요

조영대 강선생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모란디(Giorgio Morandi,1980) 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자기 작품의 완성을 수묵에서 찾았습니다. 요즘 아트페어 같은 곳에 돌아다녀보면 단색화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과, 명도 채도를 최소화 시켰는데, 그것이 먹속에 다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심오한 작품은 그러한 패턴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공부를 하다보니 강한색을 쓰는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강한색이 들어오면 시선이 집중 돼 다른 색들이 들어올 자리를 잃고 시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계를 뛰어 넘는게 먹(墨)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묵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전을 준비할 때 먹과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작업을 했는데 그때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그런 색들을 찾아써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색이라는게 조심스럽게 쓰여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단색화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먹작업들에 대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박종갑 사실 저는 아직 우리 전북 지역미술에 대해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되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강용면 선생님께서 한국화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고민을 해 볼 부분은 전북회화회가 이철량선생님을 주축으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미술의 성장을 견인하며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여러 성과를 이어받아 새로운 창작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자문을 해보자면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회원들의 연령층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꽃을 피우기 힘겨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재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예 저도 박종갑 작가님이 말씀하신 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전 전북회화회에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심사를 받고 들어갈 정도로 경쟁률과 문턱이 높았다면, 지금은 신입회원을 모셔와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전북회화회가 30주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용면 박종갑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화가 전에 비해 많이 대중화되었고, 한국화 취미생들이 이 고장에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허나 양적으로는 많아졌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미술대전에서도 기존 작가들보다는 취미생들이 더 많은 출품을 하고 그들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회화회도 마찬가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매년 하는 정기전시나 책 발간도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30년을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패턴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전북회화회의 새로운 30주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현 강선생님 말씀대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시나 모임의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언론에서 그전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하면 진로가 걱정된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술은 부의 상징 또는 여유 있는 삶의 클래스에 들었다는 자부심이었다면, 어느 순간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너졌습니다. 예술, 미술을 함으로써 고개 숙이는 시대가 된 것 이 안타깝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조영대 정미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습니다.
교수를 하기 위해 횟수를 늘리기 위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아트페어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부터 개인전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메이저급 화랑 외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에 가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이나 미술대전, 공모전들을 봐도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까 늘 고민했습니다.

정미현 사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15년 전쯤부터 사회적으로 예술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와중에 다시금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선배 예술가들이 뭔가 흥을 돋우고, 뭔가 액션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대(서양화가)
선택한 일에 대해 희생을 해서라도 도전해서 성취하는 정신이 필요

선배인 우리가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강용면 그 고민이라는 것이 흔히 말해 인문학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예술 문화가 소외받고 있고, 그게 사회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북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대의 작가가 그 시대를 읽고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하루 종일 작업하던 예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가가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시간이 남으면 작업을 해야 사회적인 면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작업을 하면서 직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주가 없고 힘든 생활 속에서는 작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함께 병행하고 움직이고 호흡해야 작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대에서 작업 외에 3, 4학년 때 진로적인 문제를 다룬 과목을 개설하던지, 학교에서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예치 시켜 직업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앞서 정미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작가로서의 명예나 자긍심의 부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의 유통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작가와 대중이 예술을 판매의 매개물로만 다루어지다 보니 작가들이 예술의 명예나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에 기반한 작품의 질을 고민해야 하는데 자의든 타의든 실질적인 자본논리에 맞춰지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먼저 작업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작가들이 숭고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이끌어내고 가다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다시 풀어내자면 작가들이 작업에 매진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문화담당자들과 문화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현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오려면 국가의 정책이나 기업들이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네. 그런 존중감은 진중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예술을 지속해 나가는 작가들의 모습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예술가를 보면 한편 안타깝지만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때 존경과 함께 벅찬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미현 네, 그런 문화예술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투자하는 돈은 전문적이고 깊은 문화예술이 아닌 얇고 넓은 문화예술에 더 치중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면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보니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보다는 취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많아지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박종갑 선생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작가는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통해 부산물로 작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박선생님 말씀에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북지역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전북에 컬렉터가 적습니다. 컬렉터가 지역작가 작품보다는 서울이나 국제아트페어에서 구입하려 하다보니 전북 미술시장이 죽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국공립 미술관에 구입비를 많이 책정 해서 작품의 질적인 면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미현 저는 젊은 작가에 대한 할당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희망이 있어야 작업을 하는데 지금 실정이 어렵다 보니 젊은 작가 양성이 힘든 것 같습니다.

조영대 요즘 일부 작가들을 보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단발성 작업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



박종갑(경희대 교수, 한국화가)

외부의 작가들과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문화탐방을 하며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 희생을 해서라도 도전해서 성취하려는 정신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생각하다 보니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의 정신을 얻을 수 있다면 부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작가들이 치열하게 작품을 하지 않고 얄팍하게 접근을 하니 깊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별화된 작품들이 나와야 합니다. 예술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닌 느껴야 하는 것이고, 일관성 있는 작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면 젊은 작가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작업을 이어갈지 우리가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지방에서는 지역의 한계성, 지역의 전통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북에서 한국화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젊은 작가들에게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 언어가 되고, 세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지원도 중요 하지만 젊은 작가들의



정미현 (상관중학교 교사)
국가정책이나
기업의 공감이 필요

정신세계, 예술세계를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진문화공간(해외연수 탐방 프로그램)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보내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좋지만 그중 소수 정예를 유럽 쪽으로 5~6개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에서는 치열한 작가들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박종갑 이 지역에 한해 졸업하는 순수 예술가 수가 얼마나 되나요?

강용면 예전에는 2~3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졸업생이 30명도 채 안되는 실정입니다.

박종갑 전북미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씨앗이 발화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인식, 시스템, 유입된 작가들과 함께 에너지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 즉 또 다른 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나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북국제서예비엔날레 등의 행사들처럼 한국화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규모있는 행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내외의 작가들이 이곳 전북에서 한바탕 놀게끔 하는 마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연구년에 해남에 내려가 남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외부의 작가들과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문화탐방을 하며 교류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전북에도 다른 지역의 작가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놀이마당이 생겼으면 합니다.

조영대 저도 그런 행사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전북회화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차고 넘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 있는 분들이 움직여서 기획하고 행사들을 개최하고, 시 도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는 10월에 "수묵정신"이라는 전시를 준비 중인데 전남의 수묵비엔날레와 다른 품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잘 이루어져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린 한국화, 회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전북미술이 지역을 뛰어넘어 외국에서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문화행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회화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그간 많은 변곡이 있었지만 이처럼 3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또한 앞으로 전북회화회가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나아 가야 할 방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종갑 젊은 예술가들이 전북회화회에 수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세대의 폭이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철량 30년 전에 전북회화회를 창립할 때, 한국화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반을 두고 매체 구분 없이 회화를 하는 분들을 모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작가님들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전북지역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집단이기주의가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처럼 잘 안되고 한국화 전공자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영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초중반까지는 먹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공 상관없이 다 배웠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전공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정신을 이해는데 먹의 쓰임새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교육에 의해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쪽에 국한시킬 필요 없이 어떤 전공이던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전공을 접하게 한다면 폭발적인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량 교수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30년 전이었지만 전북회화회라는 이름도 이렇게 짓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젊은 피를 수혈을 한다기보다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끼리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내공이 있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바쁜 세상에 다 안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림 방향도 그렇고, 깊이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우) **이철량**(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작가 자신의 정체성 확립 및 전체적인 분위기 환기 필요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업실에서 젖어서 그리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제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럼 그걸 찾아서 가면 되는 것 같고… 성급하게 당장에 가야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긴 호흡을 가지고 가다 보면 관심을 받고, 뭔가 차별화된 자기의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면 네, 말씀드리면 7, 80년대 유명 작가들이 전북에 와서 전시나 행사도 많이 했고, 전북 작가들이 전국적인 전시도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패기가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 전라북도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살림이 부족하다 보니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미술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전북만의 특징을 가진 행사를 기획해서



박지예(전북회화회 회장)
젊은 세대의 유입과
지역의 내·외부 작가들의
문화 향유 기회 희망

7, 80년 대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보면 좋겠습니다.

조영대 회화라는 게 정말 폭이 넓은 장르잖아요. 이거를 살짝 뒤집어보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갑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역의 예술환경이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예술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고 지역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전북지역이 예술가들이 오고 싶은 곳, 함께 하고 싶은 곳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미현 이번 대화를 통해 머리가 맑아지며 긴장감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굴 탓하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예 이철량 교수님께서 전북회화회를 창립하신지 30년이 되었고 우리 작가님들 모시고 좋은 시간 갖고 귀한 말씀 듣고 많이 반성을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30년을 더 잘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화의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나, 외부 작가들과 우리 지역 작가들의 문화가 향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시간 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철량 30년 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 전북회화회가 30년까지 오게 될 줄 생각도 못했 습니다. 사실 30회는 채웠지만 그만큼 내용이나 규모, 질적인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부족했지만 세상 뒷받침도 부족했고, 다 나온 이야기지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되면서 경제논리에 빠지니 작가들이 위축되고 활동이 줄고…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전북회화회가 30회를 맞이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작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제2의 출발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창립할 때 한국화 전공만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한국화전공을 하는 작가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렇게 굳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른 장르나 매체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이나 고향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작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계기로 출향작가들을 초청 해서 규모를 키우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시작을 해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미술관은 무엇을 실천하는가?

글 **김광희**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사)

지역 미술관은 무엇이어야 할까. 제도 비판의 시선 혹은 문화 비평의 틀로 서구가 미술관의 신화를 처음 이야기한 것은 60년대 말이었다. 우리 또한 연착하여, '화이트 큐브' 는 환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게 90년대 후반을 지나 미술관이라는 제도(A)와 대안공간이라 불리는, 이제는 제도(a)가 된 장소를 숙고하고 있다. 문화 향유계급, 권력으로서 지식, 시장과 자본주의는 미술관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다(미술관은 계층적이어서, 모순되게도 문화적 소속감과 소외감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을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디외는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미술관이 대면하는 동시대라 불리는 것이 언제나 골칫거리이다. 동시대는 보들레르의 말에 따르면 영원과 찰나의 속성을 모두 지녀야 한다. 역사를 견제하며 당대의 유행을 감지해야 하는 미술관이 시대의 입구로서 어떤 것을 통과하도록 하고 어떤 것을 문밖에 남겨둬야 할지는 본질적인 논쟁거리였다. 미술관은, 다소 뻔한 투로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도 강박에 의한 반복의 문제이며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이자 결과보다는 과정의 문제, 도착보다는 여정의 문제" [1] 임을 어쩌면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 미술관에서 동시대라는 시차는 난해한 좌표이다. 그러나 정작 내가 무엇보다도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 미술관을 떠올릴 때 지역이라는 일부로서 구획 짓고 한정하는 단어가 미술관에 드리우는 그림자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매우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폐기물처럼 취급할 생각" 이었다 [2] (지방이란 말은 한 나라 수도 이외의 지역, 즉 중앙 밖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때 가치의 문제가 내재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지역이란 말이라고 나는 의심하고 있다). '지역' 은, 여전히 근대화의 지연된 잔재가 떠돌거나 고착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 부정이 함의된 가치어이자 진술어여서 이데올로기적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지역은,

1) 이 수사는 줄리언 반스가 드가의 반복 경향을 옹호하면서 쓴 표현이다. 나는 이 말이 미술관의 순환 반복적 속성을 인식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줄리언 반스,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 공진호 역 (다산책방, 2019)
2) 로잘린드 크라우스, 『북해로의 항해』, 김지훈 역 (현실문화연구, 2017)

무의식적으로, 스스로가 언제나 배제 전략의 주체이자 대상 이어 왔다. 이는 혹시, 동시대 미술의 현재주의(le presentisme)가 초래하는 집중화의 변형일지도 모를 일이다.

처음 나는 '고장' 이란 단어를 쓸 작정이었다. 배치들의 공존 가능성으로서,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나는 떠올리려 했다. 어떤 기원을 품은 구획을 의미하는 고장은 무엇보다도 기원이 품은 잠재성의 구조로 대안의 형식을 지시한다('고장의 미술관' 은 너무 자기 과시적이긴 하다). 그 같은 장소는 형태 발현의 가능성 그 자체로 존재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방이든, 지역이든, 고장이든 그 말에는 그 구획을 조망하는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고, 자기만족적으로 중앙에 수렴된 거대 서사는 언제나 지역을 억누르는 무게였다(지방의 작가들은 '아버지의 불안' 과 더불어 '중앙의 편견' 과 싸워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허덕인다). 중앙이라는 단 하나의 시점으로, 장소를 바라보며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할 때 그 밑에 감춰진 분류 체계를 나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시선과 체계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려면 지역이란 말을 대체할 단어를 떠올려야만 했다. 이때, 요청되는 단어가 무엇이든, 그 말은 미술관의 로컬리티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우 뮤지엄이라 통칭하는 공간은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기능성을 더 시급하게 요청받는 곳이 되었다. 지방의 미술관은 기록보관소이자 지역 공동체를 위한 문화적 플랫폼 내지는 문화의 공적 유통망 역할을, 그 지방의 문화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뛰어넘어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3] 지역미술관은 특수한 미술 매체 그 자체가 되었고 정치경제성의 색조는 짙었다. 그런데 공동체니 플랫폼이니 문화유통이니 하는 추상적 말들의 범람 속에서도, 로컬리티는 어쩌면 더욱 물질적인 그러니까 장소에 유래하고 깃들어 있거나 부유하는 경험 이미지일 것이다. 이것은 삶의 이미지이다. 따라서 지방의 미술관은 로컬리티란 말을 보다 존재론적으로 고심해야 한다. 존재의 근거 혹은 당위가 아닌, 지역미술관이 로컬리티로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잠재력을 요청하는 과정과 여정은 어쩌면 앞선 물음을 궁리하면서 언제나 상수로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을 몇 가지 실천이 있다.

첫 번째 실천은, 동질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보편화의 연대이다.[4] 미술관의 로컬리티는 중앙 고유의 표현과 지방의 품행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이다. 갈라파고스화를 피하는 맵핑과 함께, 과학자(또는 민족지학자)의 성실함과 엄정함이, 배제의 전술보다는 포섭의 전략이, 그 같은 특수 언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그 특수 언어가 미술관 로컬리티의 윤리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

3) 지역과, '아카이브 열병' , 비균질적 공동체, 자본주의 혹은 시장 사이의 함수는 별도로 논해야 할 문제다.
4) 문제는 이 연대가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일반화의 기능일 것이다. 가령,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역미술정체성 탐구' 의 일환으로 제시한 〈고향〉 (2019. 11. 27 ~ 2020. 3. 8,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에서 말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로컬리티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물론이지만, 자본주의의 양태로서 전지구화라는 총체화의 대항 개념 같은 것이다. 로컬리티의 전략은 일반화가 아닌 보편성으로 특수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수장고의 자리는 단지 지역 내 미술가들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한국 실험 미술의 거장 이건용의 작품은, 활동 연고지였던 전북의 도립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있어야 하며, 6~70년대 한국의 실험 미술의 실천은 전북도립 미술관에서도 수집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아무개' 작가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총체성의 실천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실천은, 중앙의 자기만족성을 해체하여 수렴화 내지는 변증법적 기운을 제거하기 위한 미술관 로컬리티의 분기이다. 소실점을 거부하고, 수렴 불가능한 수평선의 평면적 실천을 각인하는 것은 또 다른 미술관 로컬리티의 윤리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 미술관은 스며듦의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기억의 소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전략은, 중앙에 스며든 사투리가 자아내는 소통 가능하면서 차별화된 혀의 근육에서 떠올릴 수 있겠다. 그렇게 지형학적으로 분기하는 다원적 역사를 미술관의 로컬리티는 추구해야 한다. 중앙이라는 단선적인 흐름에 탈락하였던 로컬리티의 서사를 수평적으로 추가하는 실천을 미술관의 로컬리티는 지향해야 한다. 지난 10월 재개관하면서 모더니즘의 역사를 재배치한 뉴욕현대미술관(MoMA)처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한국의 미술관 또한 중앙과 지방의 다원성과 다중성을 인식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성의 언어를 담보하면서 특수성이 돋아나는 미술관의 배치술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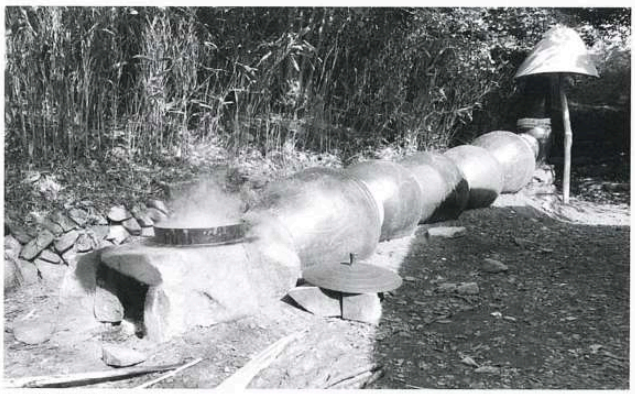
미술의 로컬리티는, 미술관이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발전소"가 되기 위한 작용점이자, "전 세대를 위한 만남의 근거지"가 되기 위한 소통의 프로토콜이다.[5] 텅 빈 빈집의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미술관은 (서구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탈식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지방의 로컬리티는 단지 지역 미술관이 아니라 한국의 국공립 미술관(들)이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할 때 제시되는 방법론 중 하나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로컬리티가 인정 투쟁이 아닌 '거기'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미술관의 실천이야 말로 미적 생명력을 연장한 무언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 실천의 내용은 중앙 수렴의 서사에서 분기하는 비균질적 서사를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진보이든 발전이든 사회는 경영될 것이다. ▲

5)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큐레이팅의 역사』 (미진사, 2013), p. 55

옹기다단가마를 통한 그을음과 먹의 시각화

글 고은지 (전북대학교 미술학 박사과정)

먹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구려 지역에 위치한 동수묘(冬壽墓)에 쓰여진 묵서명(墨書銘)과 고구려의 승려화가 담징(曇徵)이 영양왕 12년에 제묵법을 일본에 전했다 『일본서기(日本書紀)』는[1]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먹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매개체이며 서예와 한국화의 대표되는 재료이다.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먹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화가의 정신 가치에도 중요한 역할이라 판단된다.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의 형태를 관찰하고, 아교의 대체물질을 자연물에서 선정하여 먹의 철학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법을 만들어 내어 그을음과 먹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소나무 그을음을 갖풀, 황촉규, 송진과 배합하여 시각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실험하여 표현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한다. 그을음을 채취할 수 있는 시설로 옹기로 된 가마를 고안하였으며 이를 '옹기다단가마' 라 하였다. 이를 통해 '송진먹' 과 그을음을 채취할 수 있다. 그을음은 소나무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을음을 갖풀, 황촉규와 배합하여 반죽 및 건조과정을 통해 '갖풀먹' , '황촉규먹' 을 제조하였다.



도 1 옹기다단가마

첫 번째, 옹기다단가마는 '옹기를 다단으로 연결하여 그을음을 채취할 수 있는 가마' 라는 뜻이며, 소나무를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통해 그을음을 추출하는 장치이다(도 1). 옹기다단가마의 전체 구성은 아궁이에 다단으로 연결된 옹기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옹기 안에 연기를 가둬서 그을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옹기를 하나씩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을 활용

1)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문방제구』, 통천문화사, 1992, 187쪽.

* 위 글은 고은지, 먹 제조용 가마와 먹의 제조방법, 특허 제10-2008191호, 특허청, 2019와 고은지, 「옹기다단가마를 통한 그을음과 먹의 시각화」, 『미술문화연구』 13호, 동서미술문화학회, 2018 학술논문을 바탕으로 수정된 것임을 밝힌다.

** 전북대학교 미술학 박사과정

하여 연소 위치에 따라 맺힌 그을음의 색과 형태의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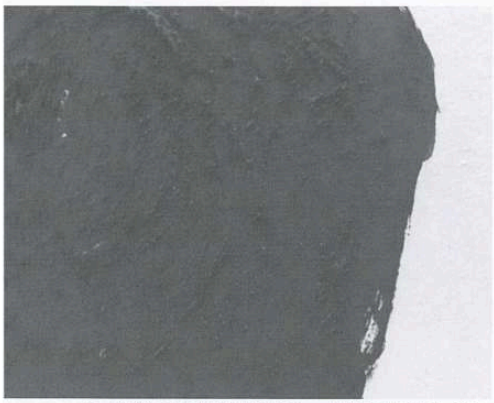

도 2 고드름 형태의 그을음


도 3 송진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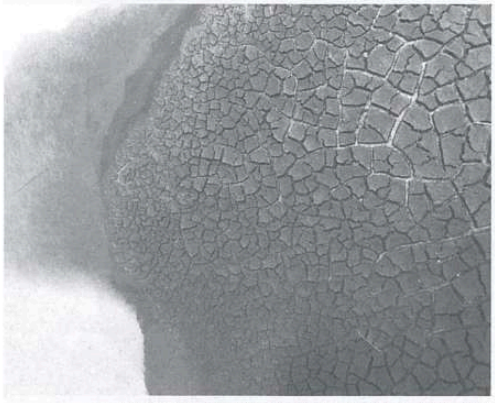
두 번째, 소나무 그을음은 소나무에 불을 지필 때 연기와 함께 섞여 나오는 부유물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먹 유물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보물 제1880호 '단산오옥(丹山烏玉)' 이나 일본의 쇼소원(正倉院)에 보존되어있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양가' (楊家)와 '무가' (武家) 먹 또한 소나무 그을음으로 제작되었다. 먹은 주로 기름을 태운 유연과 소나무를 태운 송연으로 제작되어왔으며, 유연에 비해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소나무 그을음을 제조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아궁이에서부터 연결된 옹기에서는 고드름처럼 맺혀 있으면서 가벼운 그을음을 채취할 수 있으며(도 2)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옹기에서는 송진과 그을음이 섞여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진득한 그을음인 송진먹을 얻을 수 있다(도 3).

세 번째, 갖풀먹은 먹방에서 갖풀[2]과 그을음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건조되지 않은 먹물과 건조된 먹을 통칭한다.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攷事撮要)』의 먹 제조방법을 참고하였으며, 먹을 제조하는 숙련기술자 한상묵 장인을 만나 먹을 제조하는 과정에 대해 채록을 바탕으로 갖풀먹을 제조하였다. 갖풀과 그을음은 1:0.4의 비율로 갖풀먹을 제조한다. 그을음에 갖풀을 배합하여 반죽한다. 본 연구자가 제조한 그을음과 갖풀을 사용하여 어숙권의 고사촬요에 쓰여 있는 먹을 제조하는 비율로 6시간 동안 먹방에서 반죽하여 3개월 동안 건조하면 수묵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농담 조절이나 번지는 효과를 재현할 수 있다. 그 외에 두 가지 표현방법을 실험하여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 번짐이 없고

갖풀 : 소가죽을 다려 굳힌 접착제.



도 4 〈해맥〉 확대한 사진, 140×950cm, 실상한지에 갖풀먹, 2016



도 5 〈해바람 2〉 확대한 사진, 140×140cm, 실상한지에 갖풀먹,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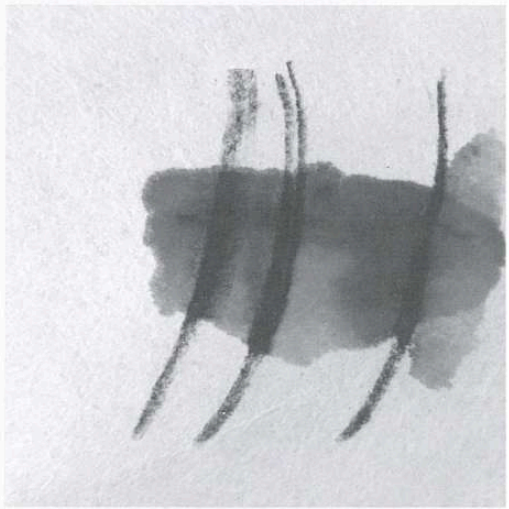
요철이 있는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도 4). 갖풀을 중탕할 때 물을 갖풀이 잠길 정도만 사용하여 갖풀의 농도를 높이고 그을음을 섞어 3분 동안 치대는데 중간에 반죽하면서 사용하던 일체의 물은 활용하지 않는다. 둘, 위의 실험보다 갖풀의 양을 늘려 10분간 반죽한 뒤 물을 섞어 붓으로 한지 위에 두껍게 올려 말린다. 12시간 이상 지나면 갖풀먹이 건조되어 갈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배합하면 번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도 5).

네 번째, 황촉규먹은 황촉규 뿌리를 으깨어 낸 즙과 그을음을 배합한 것을 통칭한다. 갖풀에 비해 접착력은 약하지만 늘어나는 성질은 강해서 갖풀의 대체물질로 선정하여 실험하였다. 황촉규 뿌리를 물에 하루 동안 불린 후 찧은 다음 소량의 물을 섞어 고운 천을 이용하여 즙을 짜고 불순물을 없앤다.

갖풀먹과 동일하게 첫 번째 옹기와 두 번째 옹기에서 채취되는 그을음을 사용하였으며 6시간 동안 반죽하고 찧는 과정을 거쳤다. 반죽 비율은 그을음 100g에 황촉규 뿌리 즙 300g인 1:3이다. 반죽 과정을 거친 후에는 번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색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황촉규먹을 벼루에 갈아 번짐을 이용하고 싶다면 반죽 과정을 거쳐서 건조하고, 콩테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반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합 후 건조한다.

건조된 황촉규먹은 벼루나 물이라는 용매가 없이도 표현에 쓰일 수 있다. 먹을 물 없이 한지에 그으면 갖풀먹은 종이가 찢어질 듯한 강한 힘을 한 곳에 주어야만 선으로 표현되나 황촉규먹은 닿는 면적 그대로 선명한 선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친 표현과 물을 이용하여 번지는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붓을 이용하는 먹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도 6).

다섯 번째, 송진먹은 본 연구자가 고안한 옹기다단가마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끝부분에서 생성되는 먹이며, 소나무 그을음과 송진이 섞여서 옹기에 붙어 있는 것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을 통칭한다. 송진먹을 이용한 표현방법은 평평한 나무판이나 흙손을 사용하여 밀어내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자국을 남기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를 얇게 하여 칠하면 황촉규먹의 거친 표현이 가능하며 접착력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선을 표현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송진먹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을 한 번에 한지 위에 올리게 되면 건조된 후 박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한지를 철 솔로 긁어 닥섬유를 일으킨 다음 송진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박락을 방지할 수 있다. 닥섬유를 송진먹과 뭉친 뒤 한지 위에 표현한 방법은 가장 단시간에 건조가 되었으며 한지에 붙이지 않고 개체로 표현이 가능했다(도 7). 본 연구자는 이를 '송진닥먹' 이라 한다. 조형물로도 만들 수 있는 송진닥먹의 표현방법은 한지에 스며들면서 사용되는 기존의 먹의 표현방법에서 벗어나 입체로 사용되는 먹의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판단된다.



도 6 황촉규먹 표현



도 7 송진닥먹 표현

본 연구는 먹의 전통 제조과정을 응용하여 그을음과 갖풀, 황촉규, 송진의 배합비율, 반죽과 건조과정을 다르게 실험하여 먹과 그을음을 시각화하였고, 한지의 닥섬유를 활용하여 박락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번지지 않는 먹, 번짐이 자유로운 먹, 입체적 표현이 가능한 먹을 제조할 수 있었다. 붓과 벼루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현에 사용될 수 있는 먹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만큼의 표현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자는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한국화 재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별기고
Special contribution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아트뮤지엄

당신의 작품을 보는 눈

'머리에서 가슴'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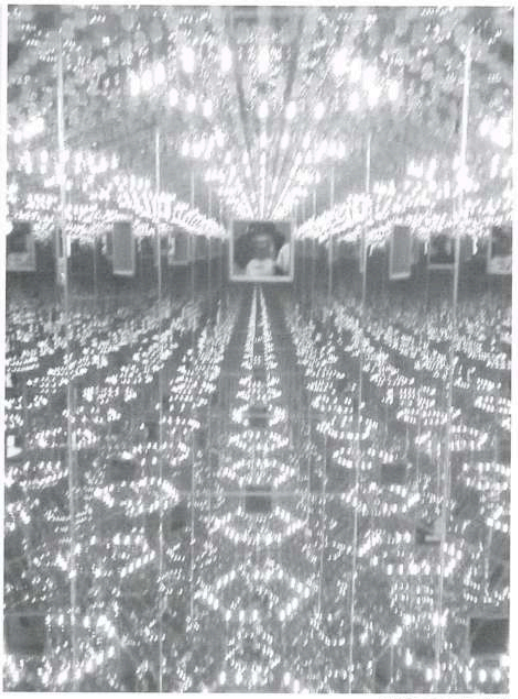
글 **장춘실** (그림 애호가)

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십여 년 전 〈전북회화〉에 졸문을 쓴 기억이 나는군요.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덥석 청탁을 받아들인 뒤 조심스러웠죠. 나이 들며 현명해진다는 건 성현의 말씀이고, 저 같은 범인은 멍청이 짓을 반복하는 법이라 다시 이 글을 쓰기로 합니다.

미술, 그것도 그림에의 대중적 관심은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회화는 미술의 근간이고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분야니까요. 조선 사대부의 문인화가 아니어도 우리 눈을 사로잡은 그림은 아주 많았어요. 문득 꼬마 때 보았던 민화가 떠오릅니다. 갈대밭의 기러기 물고기와 게, 소나무와 까치 호랑이, 기암괴석에 꽃과 나비가 있는 그림. 병풍에 읽기 어려운 漢詩가 나올수록 뼈대 있는 집안인 양 자랑삼던 시절. 우리 집에도 색깔이 화려한 文字圖 한 점이 있었어요. 家和萬事成을 쓴 혁필화입니다. 할머니 따라갔던 익산장터에서 직접 제작 과정을 보았으니 1960년대까지 무명화가가 존재했단 증거입니다. 시집오는 새색시의 혼수 보따리에 서양화 액자가 들어있었죠. 조잡한 인쇄물이었지만 풍경화나 밀레의 〈만종〉 〈이삭줍기〉가 사랑받았어요.

이처럼 우리 생활과 가까웠던 회화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보는 이의 편에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수록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미술관 수장고나 개인의 손에 들어간 걸작, 대도시에 집중된 공공미술관, 접근을 제한하는 문턱 높은 사립미술관, 누가 결정하는지 잘 모르는 작품가격 등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 결과 보통사람이 작품을 직접보고 가슴 뛰는 걸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선한 자극으로 눈과 머리가 바빠지고 자극받을 기회가 줄었지요. 그것이 사회 제도의 허점이든 문화의 차이든 경제문제든 고민거리가 분명합니다. 중고등학교의 미술 시간 축소는 하나의 예죠. 어느 순간 순수예술은 우리 삶과 관계없는 분야로 소외된 거예요. 비밀작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희생된 중요인물처럼.





시애틀 아트뮤지엄

이와는 반대로 미술계 인구는 늘었다죠.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이 아주 많아진 상황에서 당연히 작품도 쏟아져나옵니다. 유년기에 벌써 전문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들은 맹활약하지요. 그룹전 졸업전시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며 어느새 이름을 달기 시작합니다. 작가와 작품의 산사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대중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작가는 누구인가? 무엇이 작품인가? 게다가 경제난을 겪으며 먹고사니즘을 핑계로 전시장 가는 걸 포기했죠. 학생들은 성적 올리기에, 젊은이는 취업준비에, 어른은 밥벌이에 몰두하는 동안 미술계도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체험학습으로 미술관에 온 아이들 태도는 상징적입니다. 그림 감상은 저리 가라, 주마간산에 썰물처럼 달아나는 꼴을 자주 보거든요. (유명전시에 유모차 끌고 오는 젊은 부부가 많은 서울과 딴판이라 속이 아프죠)

가끔 전시오프닝을 다녀오면 생각에 빠집니다. 관행으로 굳어진 틀에 박힌 축하 잔치에 혼이 빠질 지경입니다. 작가의 가족과 친구들, 스승과 선후배 동료들로 북적이고 화기애애하죠. 어찌나 흥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루하고 시끄러운 오프닝은 질문이 남더군요. 한 시간여 진행되는 식순 중 늘어지는 덕담은 민망합니다. 1. 무엇을 그렸는가? 2. 왜 그려야 했는가? 3. 전시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관람자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작가는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작업의 소회를 듣거나 작업 노트를 읽고 싶지요. 당신에게 그림은 무엇입니까?

'저자의 죽음' 을 선언한 롤랑 바르트는 책이 출판되는 순간 저자는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림에 적용하면 '화가의 죽음' 도 가능합니다.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작품이 갤러리에 걸리는 그 순간, 주체가 바뀐다는 역설이죠. 작품은 이제 작가를 떠나 관람자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관람자는 오프닝의 덕담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우선합니다. 첫눈에 반하거나 볼수록 좋아지면 행운입니다. 거기에 차분한 작가의 의도를 눈치라도 챈다면 더욱 좋아지겠지요. 아무리 작가를 제거하고 작품만으로 말해도 말입니다. 작가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관람자의 시선이 궁금하지 않나요? 지나가는 시선이 꼭 필요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지 말고 작품만 보는 낯선 자의 시선 말입니다. 날려놓고 하는 싸움판에서는 구경꾼이 가장 확실한 심판이지요.

이런 판에서 서로가 갖춰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작품을 보는 눈' – 두 개의 시선–이죠. 먼저 화가의 눈입니다. 화가는 자기 작품에 절대적인 애정을 갖죠. 위험에서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 엄격할지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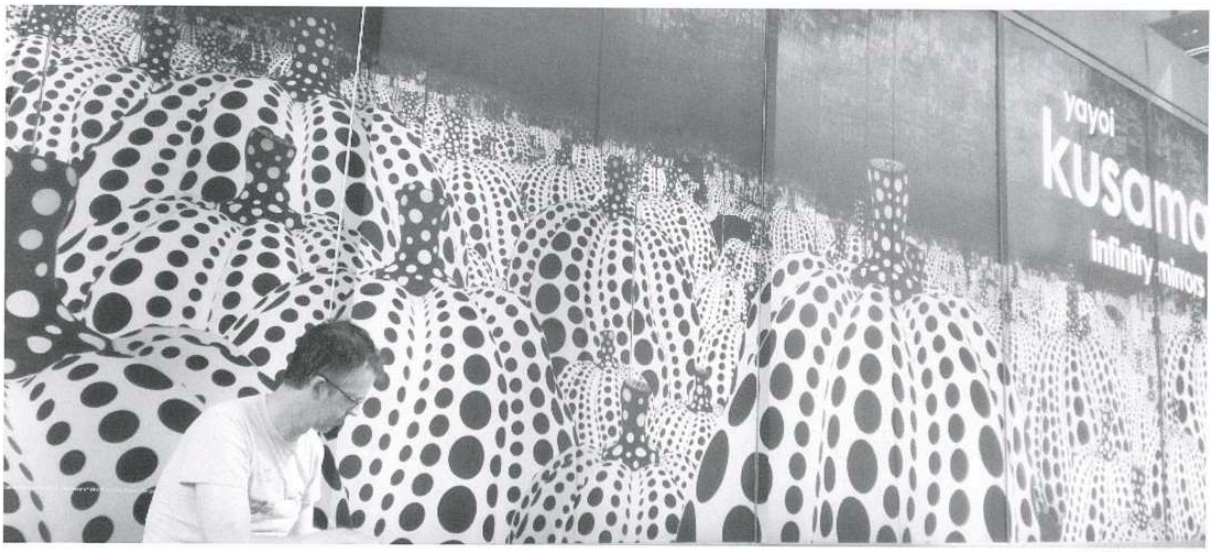
시애틀 아트뮤지엄

타인의 비판에는 극도로 예민하지요. 잘못하면 십 년 우정이 날아갑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틀어지죠. 말은 칼이 되어 상처를 남기니 대부분 입조심이 심합니다.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이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러니 당신의 작품을 평가하는 눈은 당신이 키워야 합니다. 묻고 답하고 토론을 겁내지 말아야죠. 만약 누군가 비평을 한다면 비난으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외양간보다 벌판에서 자란 소가 더 튼튼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제 작품을 가장 많이 파기한 화가라네요. 미술사를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지요. 어느 시대나 작가들의 난상토론(수 싸움)이 치열하더군요. 미학 이론, 작업 태도, 소재와 주제, 형태와 색채, 재현과 표현, 재료의 문제, 실내와 야외, 고향과 탈 고향, 계승과 혁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다투더군요. 이합집산은 정치권보다 더 심하고 고집들이 대단해요. 이것이 작품을 살아남게 한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는 창조하는 사람이니까요. (창조 : 1,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2,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 3, 새로운 성과나 가치 따위를 이룩함.) 당신은 작품을 창조합니까?

더불어 관람자의 눈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사이를 꽉 채워줄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눈이지요. 어쩌면 이런 말은 공허한 수식어일 수 있습니다. 창작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 네가 뭘 아냐 반격도 가능하지요. 이상과 낮은 현실 사이에서 나를 갈아 넣는 시간에 대해 쥐뿔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림의 그자도 모르던 초짜가 작품 앞에서 뭔가 느꼈다면 그것은 거짓일까요? 순간의 헛된 감상입니까? 오래 전시장을 드나든 그러니까 그림 보는 일에 시간과 애정을 바친 이의 생각은 화가에게 무익할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데뷔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 작가의 정체성은 뭐지? 누구 작품의 아류인가 진짜로 비슷하네. 동인전이라는데 관통하는 핵심은 다른 거 같군. 이 그룹은 한결같은 게 장점인가? 아이고! 점점 후퇴하는 거 아냐? 어디 다른 문제가 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많아도 화가에게 대놓고 묻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예의에 어긋날까 조심합니다. 이러구러 낯이 익으면 더러 묻기도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원래 예술론은 백인 백색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 관람자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매월 전문지를 받아 읽고, 전시장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도록도 사지요. 국내전시는 물론 해외전시를 보려 적금을 깨고, 서슴없이 낯선 도시에서 미술관 순례자가 됩니다. 순례자의 가슴은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훌륭한 작가와 좋은 작품에 경배할 자세가 된 사람입니다.



시애틀 아트뮤지엄

흔히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 말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산에 올라 눈 아래 펼쳐진 놀라운 풍경에, 야구장의 빨랫줄 같이 뻗어 나가는 홈런볼에, 상상하지 못한 어떤 신비로운 관계에, 상식적인 입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것에 보내는 수식어죠. 이 관용구의 주어는 '그림' 입니다. 그림은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진실한 거' 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아름다움은 흥분과 감동을 몰고 옵니다. 문제는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죠. 눈이 번쩍 뜨이는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새로워 뒤로 넘어가죠. 발상과 표현이 놀라워요. 기존의 관념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재미나서 하하 웃음이 빵 터집니다. 교실에서 배운 질서와 상식을 뛰어넘은 본질을 보여줍니다. 저도 낮에 본 그림 때문에 밤에 엉엉 울었던 일이 있어요. 차오른 던 감정이 몇 시간 뒤 폭발한 건데 그땐 잘 몰랐답니다. 그것이 스탕달 증후군인걸. 관람자의 눈과 감각은 최고치로 작동합니다. 전시장에 처음 온 사람, 명품은 사도 그림은 절대 안 샀던, 그림을 외면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끌림과 울림! 그 힘은 작가와 작품에 있다고 믿어요. 첫발을 들여놓은 전시장에서 고가의 작품을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는 이를 목격합니다. 그것도 두 점이나. (그 사람 작품에 미친 거 맞죠!?) 평소에 지독한 심사숙고형인데 말입니다. 소비에 대한 그의 근검절약을 익히 아는 저는 뻥 했어요.

재작년 전 시애틀에서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을 봤습니다. 거의 마지막 주에 기회를 잡았는데 사람이 많아 첫날은 후퇴했죠.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줄을 섰어요. 새벽부터 설쳤는데 저보다 극성맞은 1등이 한 명 있더군요. 그 전시 때문에 하룻밤 묵었단 나이든 그 여성은 다른 주에서 전날 도착했대요. 친척 집에서 자고 서둘러 나오느라 밥도 굶은 채. 우리 가족 역시 커피와 도넛으로 아침을 때우며 줄을 지켰답니다. 한 번 나가면 순서가 바뀌니 주변에 얼굴도장을 찍고, 화장실은 눈치껏 다녀오는 잔꾀도 부리면서요. 그동안 미술관 주변의 사방 도로는 관람객들로 넘쳐 인간 울타리가 생깁니다. 들고 온 간이 의자에 앉은 노인들, 무릎 위 노트북에 코 박은 젊은이들, 어찌나 열기가 대단하던지 시애틀 시민이 전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땠냐고요? 만족! 아니 대만족입니다. 입장료와 도록 값이 아깝지 않았어요. 장장 세 시간의 줄서기를 견딘 보람이 있었죠. (정확히 10시에 문을 열고 5분 후 입장) 기획력이 돋보인 전시입니다. 영상 속 붉은 가발을 쓰고 웅얼웅얼하는 할머니작가는 명성에 걸맞게 기발했고 의외성이 놀라워 재미있었죠. 노작가는 작품으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초기작부터 젊은 시절의 도발과 저항의 몸짓들, 개인의 기질이 낳은 강박과 편집증, 환상과 꿈으로 가득한 작가의 세계, 이제 노년의 원숙미와 자유로움은 아름다움의 극에 달한 것 같았어요. 설치작품은 관람자의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 올렸죠. 관람자를 작품 속 등장인물로 만들고 새로운 세계로 유도했어요. 그 순간은 관람자도 작가입니다. 더불어 한 장면을 만들어냈거든요.

덧붙여 작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아트홀 전시도 말하고 싶군요.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등 세계적으로 소문난 작가의 작품들이 많았어요. 거대함, 의외의 것, 고정관념을 깨는 뜻밖의 작품이 흥미진진했죠. 저는 특별전에 나온 김호득 작가의 먹물 가득한 설치작품에 감동했습니다. 호수에 햇빛이 그림자를 남기듯 먹물은 넓은 공간에서 빛이 났어요. 시커멓고 깜깜한 공간이라 처음엔 보이는 게 없죠. 차차 어둠을 익히면 흐릿한 조명 속 동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그림자가 들어옵니다. 물이 가득한 논에 그믐밤 마지막 달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대단히 인상적이었죠. 작가의 평면작업에 익숙했다가 대담한 설치작업에서 쇄신을 느꼈답니다. 명상과 선의 세계로 이끄는 것 같았거든요. 작품이 달라지니 보는 이의 감각도 일렁입니다. 김호득 작가의 이 작품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어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쯤에서 슬쩍 고백하자면 제 첫 소장품이 한국화였단 사실입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친구의 정성이 사무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신혼 여행비로 날릴 수도 없고,

일용품을 사는 건 더욱 안 될 것 같은 값진 돈이라 믿었어요. 아주 중요한 데 쓰고 싶었답니다. 4년 차 교사 월급의 절반이 넘은 액수니 정말 큰돈이었어요. 그 당시(1978) 전주는 한국화가 중심이었고 거래도 한국화가 앞에 있었죠. 두 번째도 역시 한국화입니다. 첫애 돌 반지 값으로 또 작품을 산 거예요. 작품이 눈에 삼삼하고 잔상이 남아 꿈에도 보일 지경이면 사랑에 빠진 거 아닌가요? 발이 안 떨어져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쿠사마 야요이와는 인연이 있을 뻔하다 없었죠. 90년대 KIAF에서 경험담입니다. 서울의 한 화랑에서 들고나온 세 개의 호박 그림을 발견했어요. 나란히 걸린 세 점은 노랑 빨강 초록이었다고 기억해요. 검은 선이 뚜렷하고 점들이 찍힌 아름다운 호박이었죠. 값을 물었더니 상대를 안 합니다. 아예 대꾸가 없어요. 어쩌면 촌티 나는 아줌마를 무시한 걸까요? 절대로 못 살 형편은 아니었건만 면 전 박대에 속만 아팠답니다. 소품이었고 나중에 들으니 석 달 월급이면 한 점은 살 수 있었더라고요. 인연이 아니었겠죠. 화랑 대표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해 성사됐더라면 제 소장품이 더 풍성했을 텐데.

그간 전북회화의 끈을 이어온 여러분의 활동이 보람차길 기대합니다. 삽 십 년이면 한 세대를 넘는 긴 시간이군요. 그것은 무언가 남기고 기억될만한 충분한 세월입니다. 부침과 성쇠는 있을지라도 소멸은 없다는 예술세계. 예술은 언젠가 재발견되고 평가되어 부활합니다. 생명이 가진 끈질김으로 여러분의 작품이 어디서나 빛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버티고 우기며 지킨다! 예술가의 3대 조건이라죠? 오늘도 그림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에 의지하며 한 걸음 더 내딛기로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어주는 작품과 작가들을 만나는 기쁨에 감사하면서.



시애틀 아트뮤지엄

작품 한점으로 행복했던 지난날들...

미래는 두려움, 불안감, 기대감을 예상하지만, 과거는 추억을 떠올린다.
삭막하고 기계적인 삶에서 오늘 나는 따뜻한 이미경 펜화를 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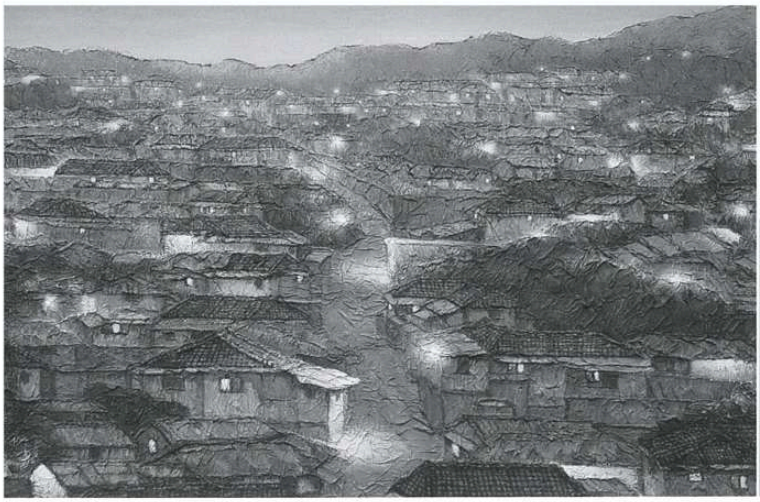


이미경/구멍가게

글 **김용희** ("직장인 컬렉터 되다" 카페운영자 / 보령제약 재직)

구멍가게...
어린 시절 어린이 용희를 생각한다.
이미경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추억 속에
어린 동무를 소환한다.
보고 싶구나 친구야...
음... 그림이란 무엇인가?
그림은 꿈이다.
나는 꿈을 꾼다.
트라움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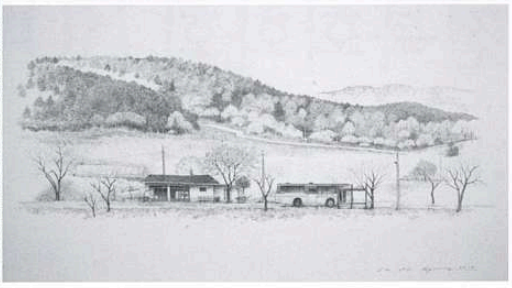
독일어로 트라움은 꿈이라는 뜻이다. 난 항상 작품을 만나며 작은 소·확·행 꿈을 꾼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동료들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여 저녁시간을 가족과 같이 보내고 또 내일의 삶을 반복적으로 마주한다. 무료한 삶에 그림은 나에게 작은 꿈으로 다가왔고, 김점선 화백의 여섯 마리 오리를 시작으로 직장인 컬렉터의 길로 뛰어들었다. 시간이 지나 그림 한 점, 두 점을 소장할 때마다 나는 추억도 시간도 소장한다. 그림을 접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



정영주/산동네



이미경/삼거리슈퍼



이미경/버스정류장

그림은 작품 하나에서 오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많이 소장하게 해준다. 같은 생각과 같은 취미로 같은 공간에서 삶의 힐링을 느끼게 해주는 컬렉팅의 세계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뿌리가 되어가고 있다. 작품소장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 그 이유는 그냥 좋아서 단순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치료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작품 컬렉팅을 혹자는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관심분야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사치를 이미 하고 있다. 자전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골프 동호회, 시계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그 밖 다양한 취미활동이 있다.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사치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사치라 말하지 않겠다. 본인이 좋아하며 힐링을 느낀다면 그건 사치가 아닌 건강한 소비라 말하고 싶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작품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함께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다. 작품 한 점, 한 점을 소장하는 재미는 해본 사람만 안다.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컬렉팅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작품을 소장하기 전날 심장이 떨리고 당일 작품을 맞이할 때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느낀다. 컬렉팅이란 그런 것 같다. 왜 작품 구입을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냥 좋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싶다.

나는 직장인, 영업사원이다.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다. 영업은 가끔 웃기 싫어도 웃어야 할 때가 있다. 마치 삐에로 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림은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모든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장님 가면, 부장님 가면, 과장님 가면, 아빠 가면, 엄마 가면 온통 가면 놀이 천지다. 어쩔 수 없이 사회라는 조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미술품 컬렉팅을 하면서 나는 그 가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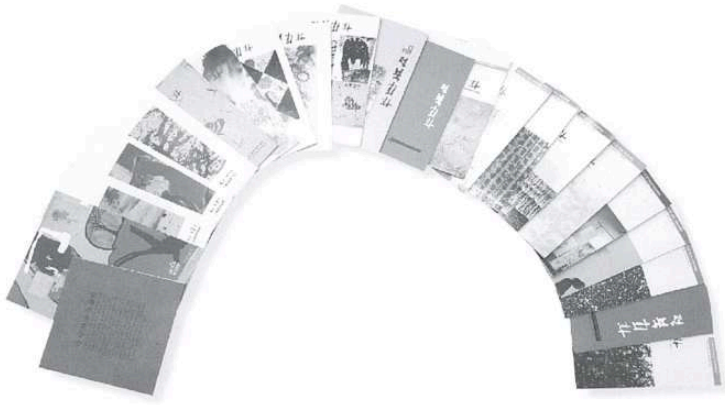
늦은 새벽 정영주 작가의 산동네라는 작품을 보며 쌀쌀한 가을 새벽녘에 작품 하나로 난로의 따스한 온기를 느껴본다. 이때만큼은 일곱 개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김용희로 작품을 대한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불리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누구의 아빠, 어느 지역의 팀장, 차장과 같은 수식어로 나는 가면 뒤로 숨어 지내는 날이 많았다. 작품은 그런 나를 다시 찾아준 소중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처럼 기계적이지 않고, 꾸며지지 않아서 참 좋다. 삶의 기쁨과 설렘을 주어서 나를 더욱더 젊게 해주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어렵다거나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취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멀지 않다. 그림으로 추억을 소환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삶이 나는 컬렉터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이어서 시간이 없고 돈이 부족하지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조심스럽게 컬렉터라는 문에 노크를 한 번 해봐라. 세상 어려움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에게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분명 한 해가 지나갈 때, '그래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는 확신이 생길 거라 나는 믿는다.

전북회화회 30년을 함께하며...

글 정미현 (전북회화회 창립회원)



1989년 겨울, 갈탄 난로 앞에서 우편엽서에 편지를 쓰고 있던 20대 중반의 청년작가라고 불리우던 순간을 떠올려본다.

전북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 작가들에게 함께 모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그룹 결성을 논하자는 엽서 한 장의 편지가 전달되면서 그렇게 모였던 작가들이 지금의 '전북회화회' 라는 그룹을 1990년 창립하게 되었다. 30년이 지난 2019년에 전북회화 30주년을 기념하여 이 글을 쓰게 될 줄을 그때 그 시절에는 짐작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전북회화회는 1990년 '중앙시장사람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화랑에서 **'전북회화 창립전'** 을 열었다. 지연, 학연등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전북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었다. 전통적 분위기가 강했던 전북화단에 80년대 현대수묵 정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며 작업해오시던 이철량(前 전북대교수)작가를 중심으로 실험적이고 혁신적 작업 스타일은 화두가 되었고 젊은 작가들의 작업세계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출발했던 전북회화회가 이제 30회 정기전시회를 맞이하면서 세월이라는 흐름과 시대정신의 혼돈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이끌어온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책꽂이에서 세월의 뽀얀 먼지와 누런색 옷을 입은 1990년 창립전 팜플릿과 1993년에 창간된 '전북회화' 지를 꺼내 들었다. 첫 장을 열자 창간사라고 써 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모인 전북회화회 회원들은 그들 가슴속에, 혈관속에 전북의 기상과 분노를 그리고 선험적 예술성을 가지고 출발한 이 시대의 첨병들이다.

--- '전북회화회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할 것이며, 더욱이 우리의 현실 곧 전북회화의 새로운 형상을 위하여 함께 할 것이다" 창간사를 읽어 내려 가면서 한 뭉치 뜨겁게 달아오르며 먹먹한 감동이 나를 기쁘고도 슬프게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제 30회를 맞이하는 전북회화회의 동지들과 화두로 삼아 전통과 오늘 그리고 미래의 전북회화에게 길을 묻고, 그 답을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이 시대의 첨병이 되어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2019년, 제30회 전북회화회전과 제26호 전북회화회 발간을 자축하며....

한옥과 자연, 그리고 현대 입체조형작품

완주 오스갤러리 **강용면 초대전**

'전통을 품다'

소양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 2019. 04. 18~8.30



강용면 작품 '응고(凝固)'



강용면 작품 '응고(凝固)'

"우리의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고 서양의 예술이 가장 발전된 예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술은 가장 정신적인 인간의 행위이며, 역사의 전통이라는 토양 속에서만 훌륭한 예술작품이 생산 될 수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한국 전통의 미를 재해석하며 고유의 입체조형과 설치 작업세계를 구축해 온 중견 조각가 강용면.

완주 오스갤러리가 강용면 작가 초대 개인전 '전통을 품다!' 전을 8월 31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 에서 진행하고 있다. 에폭시를 재료로 사용해 현대인의 가슴 속에 갇힌 응어리를 표현한 작품 '응고' , 소복하게 밥이 쌓인 밥그릇을 거대하게 확대한 작품 '조왕' …. 전통한옥과 종남산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야외정원에 설치된 강용면 작가의 최근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미적체험을 선사한다.

오스갤러리는 "이번 초대전은 복합문화공간 아원고택의 전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전북에 작업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작가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 라고 밝혔다.

강 작가는 김제에서 태어나 군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조각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9. 04. 18 전북일보 이용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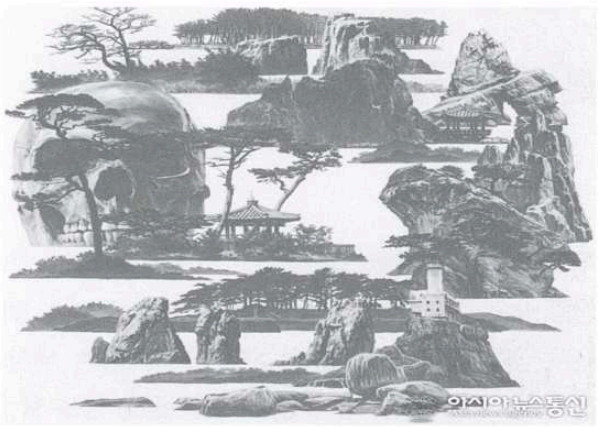
교동미술관 2019년 중앙 우수작가

이세현 초대전, 'Red sansu' 展

교동미술관 2019. 7. 30 ~ 8. 11



이세현 / Between Red-018 NOV01, Oil on Linene, 60x60cm



이세현 / Between Red - 155 Oil on Linen, 300x200cm, 2012

교동미술관(관장 김완순)은 전시작가의 다양성과 분야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 중앙 우수작가 초대전 '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의 초대작가는 대표작인 〈붉은산수〉를 통해 한국과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세현 작가다.

린넨을 입힌 캔버스 위에 붉은 물감만을 사용해 섬세함과 깊이를 더한 한국의 산수는 작가가 군 복무시절 야간 투시경을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보았던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또한 느껴졌던 풍경들로 일련의 단편적 이미지들을 유년시절 고향의 기억과 풍경들로 재구성해 재표현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세현 작가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풍경, 가깝게는 일년 전 다녀온 자연의 모습조차도 다시 볼 수 없는 풍경이 돼버리는 한국의 현실을 그려,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과 향수, 아름다움과 비극 등의 양면적 감정을 느낌으로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이세현 작가의 작품을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교동미술관 본관 1전시실과 2전시실에서 선보인다. 고유의 질감과 물성, 작업 방식으로 독특한 시각언어를 구축한 이세현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며 내제돼 있던 유토피아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 07. 29 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먹빛으로 보는 오늘의 삶

'박순철·박지예 2인전'

옥천골미술관 2019. 09. 03~09.29



박순철 / 비는 내리고
종이에 수묵담채 180*140cm.1997



박지예 / 옆집 여인
종이에 수묵담채

"축 늘어진 어깨, 고된 노동과 추위로 붉게 물든 손, 먹빛으로 내리는 비는 과거 힘든 일을 마치고 뜨끈한 순대국을 소주와 적시고 외로이 걷는 아버지를 보는 듯하다." 작품 〈비는 내리고〉 관람객의 감상평이다. 먹빛으로 보는 오늘의 삶 **박순철·박지예 2인전**이 지난 6일 옥천골 미술관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작가와 관계자, 관람객들은 간단한 다과를 들며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박순철 화가**는 "화가는 그림 자체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화가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작품 설명을 부탁하는 기자의 질문에 박 화가는 "〈길을 걷다〉라는 작품이다. 그림자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그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사람은 욕망을 갈구하는 현시대를 투영해 그려냈다. 또 다른 〈길을 걷다〉 작품은 끝없이 빗자루질을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길에는 쓸어낼 것이 계속 있다. 쓸어내는 것은 욕망을 쓸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만큼은 쓸어도 쓸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흘러간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에 대해 비판의 말을 전한 그림이다. 이처럼 모든 그림에 전하는 말이 있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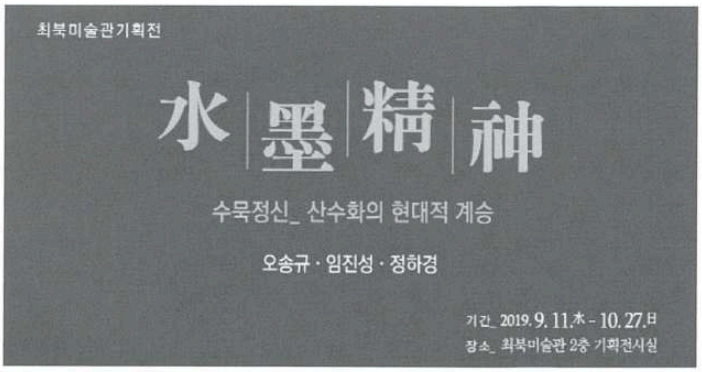
박지예 화가는 옆집 여인을 주제로 다양한 중년 여성을 그렸다. 박 화가는 "이 그림들에는 모델이 없다. 상상 속 옆집 여인을 그렸다. 옆집 여인은 내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며 나 자신이다. 이들을 통해 어느덧 인생의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삶의 욕망, 제 개인의 자유를 표출하고 싶었다. 특히 이번 작업은 인물의 단순한 형태를 통해 내적인 감정과 표정을 얻어내려는데 집중했다. 또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지쳐가는 중년 여성의 몽환적인 모습을 순간적인 붓질을 통해 표현했다" 고 말했다.

2019. 09. 10 열린순창 김상진 기자

무주 최북미술관, '수묵정신-산수화의 현대적 계승' 기획전 개최

무주 최북미술관 2019. 09. 11~10. 27

오송규
임진성
정하경
.
.
.
작가 참여





무주최북미술관에서 기획전 '수묵정신_산수화의 현대적 계승' 을 연다. 충북대학교 오송규 교수와 경희대학교 임진성 前 겸임교수, 한성대학교 정하경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다음달 27일까지 개최된다.

오송규 교수의 〈소요유-여정〉 등 화선지에 수묵작품, 임진성 교수의 〈몽유금강도〉등 화선지에 수묵과 니금작품, 정하경 교수의 〈울릉도의 아침〉 등 화선지에 수묵담채작품 총 17점이 전시된다.

양정은 학예사는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아 무주가 마음으로 나눌 수묵展을 준비했다" 며 "새로운 시도가 깃든 작품들이 수묵을 향한 시선의 범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더욱 확장시켜줄 것" 이라고 밝혔다.

2019. 09. 16 전북일보 김효종 기자

모악산 자락선 채색하지 않은 수묵의 세계가

전북도립미술관 2019. 10. 01~11. 30



왼쪽부터 **송수남, 서세옥, 황창배** 작가 작품



왼쪽부터 **권영우, 황욱, 김호득, 손동현** 작가 작품

10월 1일부터 모악산 자락에서는 채색하지 않은 수묵의 세계가 펼쳐진다.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서 열리는 '수묵정신 특별전' 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북은 한반도 농경문화의 본산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이기도 하다. 학문과 풍류를 바탕으로 한 선비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묵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기존 수묵화 전시와 차별이 뚜렷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수묵화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특별전이 갖는 의민다. 특히 전북의 수묵 서화가 가장 성행했던 전통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라도 지역의 서화 작가들의 맥락을 재조명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한다.

수묵화는 20세기 서구현대미술의 확산으로 크게 위축되고 관심에서 멀어진 것도 사실이다. 수묵화는 그러나 우리 전통정신과 뜻을 표현해온 수준 높은 메타포로서, 시대의 미감을 반추하고 새로이 현시대의 정신과 미적 양식을 구현해야 한다. 현대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 인물, 정신을 확인함으로써 수묵이 현대미술 속에서 어떠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제시될 예정이다.

김은영 도립미술관장은 "새로운 전라도 천년의 비상을 위해 전통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정립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고 말했다. 개막 당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전시 개막 행사에서는 전북 서예가 김병기 교수의 강연과 정마리의 현대적이고 예술성 높은 정가 공연이 어우러진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전시연계체험 '다향묵향' 이 진행된다. 수묵 이미지의 영상을 연출한 공간에서 관람객이 직접 수묵화를 체험하고 차를 음미하면서 명상과 치유,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미술체험 프로그램이다.

2019. 09. 27 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계절을 따라 '이승훈 사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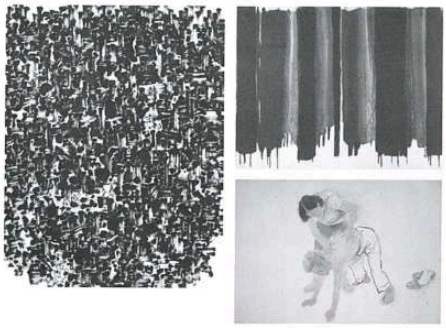
19. 2. 25~3. 2 익산 인갤러리



개인전 4번째로 우리지역의 풍경을 사계의 모습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물과 나무와 산과 바위들은 산수풍경을 이루는 요소이며 동양적 정신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소재들이다. 명상을 하려면 물이 있는 곳에서 하라는 말이 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인간의 뇌파를 안정 시켜준다고 한다. 각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물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한다. 이 사계의 풍경들을 한 자리엣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었다.

3.1 운동 100주년기념 현대수묵 3인전 (송수남, 이철량, 김호석)

19. 2. 27~3. 26 누벨백미술관



현대 수묵의 주축인 송수남, 이철량, 김호석 3인의 작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숭고한 민족정신을 되새기고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한국 현대수묵을 재조명하고자 수묵화 운동의 초기작과 근래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봄봄 '송태정'

19. 4. 1~4. 9 한전아트센터



'봄봄'이라는 주제로 하는 이 전시는 버질아메리카에서 기획한 초대전이다.
꽃과 곤충들이 함께 어우러진 봄날의 따스함을 한지를 찢어 붙여가며 표현했다.

여유, 먹빛을 보다 (박지예, 유예빈, 송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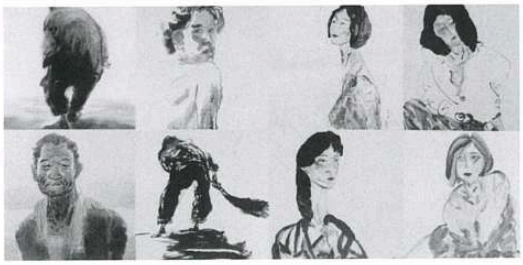
19. 6. 18~27 누벨백미술관



전북은 일찍부터 문인화의 본 고장이었다.
옛 문인들은 자연에 대한 삶을 즐기고 사군자의 품격을 지향해 왔다.
'여유, 먹빛을 보다' 를 기획하며 박지예, 유예빈, 송화정은 문인화의 선비정신을 담아 각자 새로운 수묵정신을 시도하였다.

먹빛으로 보는 오늘의 삶(박순철, 박지예)

19. 9. 3~29 옥천골미술관



박순철 작가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동학혁명에도 관심이 있따. 전봉준의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고, 그의 강한 눈빛, '분노' 를 그렸고, 박지예 작가는 옆집 여인을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단순화하여 형상화해 표정을 얻으려고 집중했다고 한다. 또 순간적인 붓질을 통해서는 중년 여성들의 내면을 담은 몽환적 느낌을 담았다.

이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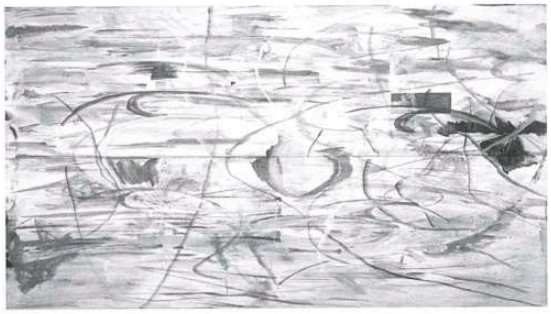
19. 10. 9~22 토포하우스



도시는 또 다른 자연이다. 스스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도시는 이제 거대한 생명체임이 분명하다.
먹은 이제 이 새로운 자연과 일체해야 한다. 수묵은 오래전에 정신이었으며 무한한 생명이었다.
그러나 먹은 스스로 이미 神의 지위에서 내려와 이 도시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작가노트-

나를 보는 '박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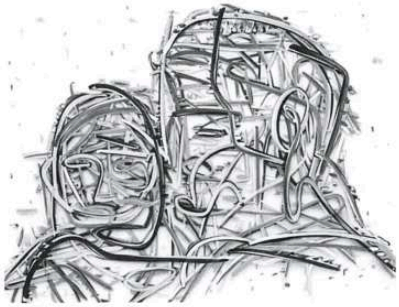
19. 9. 6~9. 24 누벨백미술관



컴퓨터를 매개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창출되는 가상공간은 우리의 삶에서 유용성을 위한 기술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 현실에 깊이 잠입해 있는 또 다른 현실이 되었다.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이 우리의 지각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시각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Family Landscape '임희성'

19. 7. 2~7. 14 교동미술관



교동미술관(관장 김완순)은 "올해로 여덟 번째이고 역량 있는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2019 젊은 미술전 - 이 작가를 주목하라' 에 임희성 작가를 선정하여 'Family Landscape' 전을 진행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작가는 교동미술관에게 창작지원금 300만원과 전시실 제공, 리플렛 제작, 오픈식 등 기획초대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받았다.



고양이 남매 / 80×60cm / 한지에 수묵, 2019

고양이 남매

나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
어렸을 적, 고양이에 대한 괴담을 듣고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요즈음 수경재배를 하기 위해 큰 도자기 화분을 작업실 밖에 두었는데
늘 물을 가득 채웠는데도 날마다 바닥이 나있었다. 범인은 바로 길고양이였다.
때로는 내가 문을 여는 사이에 고양이가 작업실에 들어와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어느 때인가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양이가 내 눈을 응시했었다.
그 눈을 잊지 못해 고양이 밥을 열심히 챙겨주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한 번 밥을 주게 되면, 고양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 더이상 밥을 주지 않았다.
마주칠 때 마다 '너 나한테 기대하지마!' 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하지만, 목이 마를 고양이 생각에 물을 채우러 오늘도 나는 작업실을 가게 된다.

김 근 미 (Kim, Keun-mi)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 • 토닥토닥회 10회 참여 • 전주누드크로키회(2016~2019) 4회 참여 • 건지전 (2017~2019) 3회 참여 • 전주국립박물관 한국화교실전 (2018~2019) 2회 참여 • 전주시 완산구 학봉 1길 3(놀노루 스튜디오) • H.P : 010-4124-3257



유년-기억여행 2019 / 73×53cm / 캔버스에 토분, 석분, 담채, 2019

가슴깊이 간직한 기억의 편린(片隣)들을 흙이라는 매질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며, 흙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원적 시발점이자 궁극적 귀착지(歸着地)라는 귀장(歸藏)의 의미로 느끼고 선택하였다.

나만의 공간 화면을 만들기 위해 석분과 토분 그리고 황토를 주재료로 도입하였으며, 이렇게 조성되어진 기억의 장(場)은 유년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련한 엄마의 꽃밭이다. 화면은 기억의 파편들을 자유롭게 정착시키고 작가는 그 속에서 소유하며 자아의 존재 확인과 의미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김 준 근 (Kim, Jun-Keun)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미술학 박사〉 • 국내외 개인전 24회(metalos/파리, 워싱턴주립대학Museum/미국, 서일본컨벤션센타/일본) • 한국미술의 빛 초대전(밀라노아트센터/이태리) • 광화문-천안문 국제아트페스티벌 (觀音堂文化大道/중국) • LA한국문화원 초대전 (LA한국문화원 초대전/미국) •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 대표작가전(귀넷몰콘서바토리 아트홀/미국) • 2009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현대미술제(Fundasion Tres Cultoras/스페인 세비야스) •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시립미술관) • 코스타리카국제미술제(Galeria Nacional/코스타리카) • MUSEO DEL MARMO초대전(MUSEO DEL MARMO/이탈리아) • 파리앙상블 초대전(Euni Ahn Allard 갤러리/프랑스) • 문명의 기억과조형(주멕시코한국대산관문화원) • 바로셀로나국제작품초대전(IED대학/스페인) •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9개국 작가초대전(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갤러리)

• 현재 :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 경기 파주시 하우안길 47-39 아르카우노 101동 301호 • 전화 : 010-2426-2632 • E-mail : nature@cb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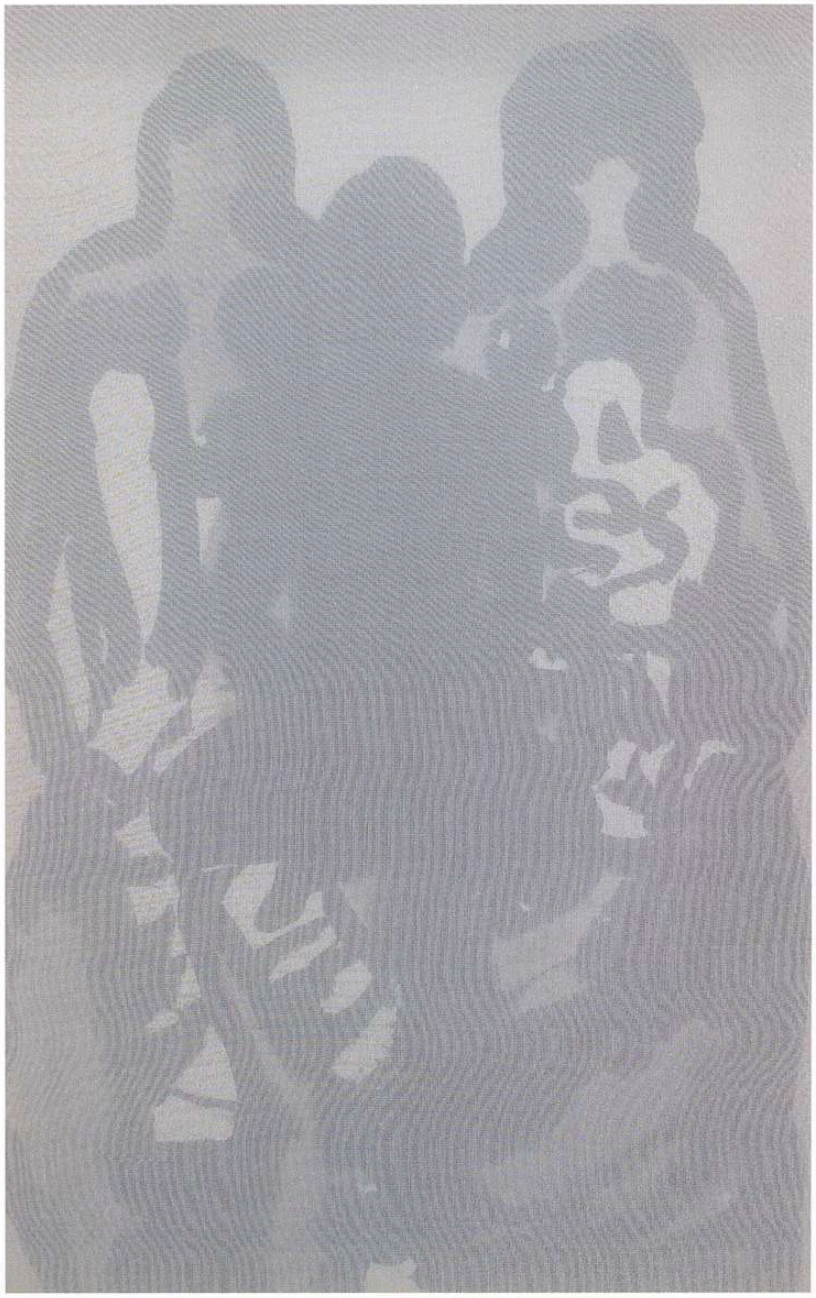


나를 보는 나 / 94×64cm / 한지 위에 수묵, 2019

컴퓨터를 매개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창출되는 가상공간은 우리의 삶에서 유용성을 위한 기술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 현실에 깊이 잠입해 있는 또 다른 현실이 되었다.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이 우리의 지각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시각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박 성 수 (Park, Sung-so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13회 • 단체전 100여회 • 수상경력 : 2016 전북 청년작가 선정, 전북도립미술관 /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 2012 해외교류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 2009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수도권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 2008 〈시각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전주문화재단 / 2007 2007-2008 미술작가지원사업, 우진문화재단
• 레지던시 : nars foundation 뉴욕, 미국(2016) / 전북창작스튜디오(2016) / 경기창작센터(2014~2015) /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 E-mail : sspark0308@yahoo.co.kr



혈맥(血脈) / 50×31cm / 한지, 유연묵, 산마필, silk, 2004

平中見奇　靜中見動

박 종 갑 (Park, Jong-gab)

• 現)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소장 · 국회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위원/동서미술학회 부회장 · 한국미술협회 이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
• 개인전: 20회(한국/중국/뉴욕/독일/러시아)/2017 월전문화재단 초대개인전(한벽원미술관/서울) • 단체전: 국내.외 400여회·201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주)·2019 상해종이비엔날레(奉贤博物馆/상해) · 2019 국회남북미술 展(국회본관 갤러리 /서울) ·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비엔날레 본전시관 /목포) · 2018 한국수묵 해외순회 展(상해, 홍콩한국문화원/중국) · 2018 書書 유유산수-서울을 노닐다 展(세종문화회관/서울) · 2018 대만수묵비엔날레(국부기념관 /대만) • 수상: 송은미술상/이당미술대상/중앙미술대전 본상/MBC미술대전 우수상 등
• 레지던시 : 2005 금호미술관 금호레지던시 1기 · 2017 행촌문화재단 레지던시(2004~2014 한국화 대안공간 '꽃' 디렉터 · YBM / 미진사 등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작품수록
· 송은미술대전 심사위원/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등 • E-mail : namu42@khu.ac.kr • H.P : 010-3793-2689



옆집 여인 / 102×69cm / 종이에 먹과채색, 2019

옆집 여인은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며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아내이며, 또한 엄마이고 그리고 평범한 직장동료들이기도 하다. 나는 이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중년 여성들의 일상을 말하고자 한다.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위치이다. 그러나 본인의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지켜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녀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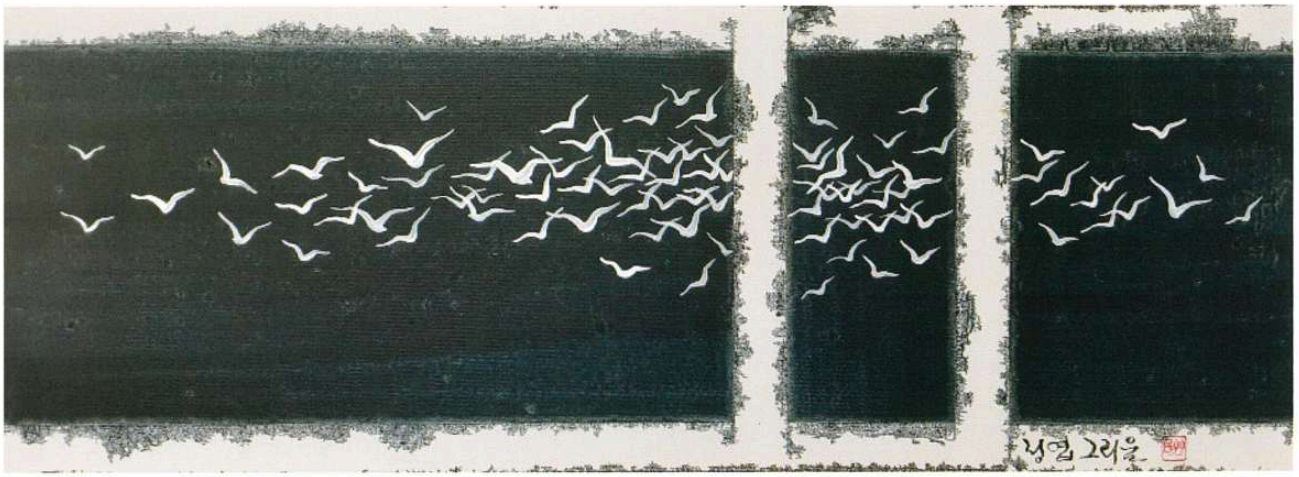
나는 그녀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감정과 또한 삶이 미묘하게 드러나도록 인물에 집중하며 화면에 담아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어느덧 인생의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삶의 욕망과 나아가 나 개인의 자유를 표출하고 싶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며 직장을 갖고 되풀이 되는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부터 일상에 지친 중년 뭇 여성들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다.

인물은 단순화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형상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내적인 갈망과 욕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상의 허전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감정표출은 모필과 종이가 만나 우연적인 붓의 성질을 이용하여 스케치하듯 몽환적인 모습 그렸다. 화면은 조형적 변화를 의식하며 인물에 표정에 집중 하였다.

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나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뭇 여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에서 고귀함을 발견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는 곧 본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박 지 예 (Park, Ji-ye)

• 전북대학원 박사(졸) • 원광대 대학원 졸 • 개인전 7회 • 2019 옥천골미술관 박순철 · 박지예 2인 초대전 / 원묵회(기린미술관) / 박지예, 송화정, 유예빈 3인전 (누벨백미술관)
• 전주박물관(한국화교실 강사)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181(코오롱A) 11동 501호 • 전화 : 010-2658-7822 • E-mail : pjy7822@hanmail.net



비상을 꿈꾸다 / 60×120cm / 천+수묵채색, 2019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함 대신에

오십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남아 있다.

답답한 시절에 김수영의 시는 우리에게 무얼 말하는가?
이 답답한 가을도 속절없이 겨울에 포위되었다.

방 정 엽 (Bang, Jeong-yeop)

• 전북대 미교과졸 • 전북회화회 · 미협회원 • 현대수묵화활동 • 現) 전주고등학교 재직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 전화 : 011-681-7127



깊어가는 가을날에 / 40×30cm / 한지에 채색, 2019

가을 햇살 받으며
한참을
바라본다.

바람과 함께
너울너울 춤추는
억새의 물결

햇살과 함께
쓸쓸히 물들어 가는
생명의 빛깔

송 태 정 (Song, Tae-jeone)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주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및 아트페어전 : 2017 초대전1회 (전북지방경찰청) / 2017 개인전2회 (교동아트센터) / 2015 개인전1회 (미국 스캇데일 겔러리, 썬 겔러리) / 2012. 10. 07 아트페어전 3회 (한국소리문화전당) •단체전 : 건지전, 전북회화회 등 80여회 •현재 : 건지회원, 한국 미술 협회회원, 전북 회화회원, 버질아메리카 회원
•전주오송초등학교 재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70번지, 진흥더블 파크 311동 504호 • E-mail : dduknemi@hanmail.net •Tel : 010-9860-3883



뜨락을 거닐다 / 69×137cm / 수묵담채, 2019

마음이 가는대로 붓질을 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자 했다.
선과 농담으로 발현된 형상은
그저 내가 기억한 순간들의 감정이
펼쳐지고 집적된 것이다.

시원스레 뻗다가
자연스레 뭉개지고
단순하게 해체되며
엉뚱하게 끼어들고.....

수묵을 통한 조형적 표현으로
대상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빛에 투영된 그림자처럼
본체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신비롭다.

자연과 대화하며
상상력이 가득해지는
이 작업에
나는 또 가슴이 뛴다.

송 화 정 (Song, Hwa-Jeong)

•전북대 미술교육과 졸업 • 전북회화회 회원 •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재직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4길 15-6 •전화 : 010-4185-1885 •Email : ilikegogh@hanmail.net



모악후정1 / 75×31cm / 수묵, 2019

뜰 안 가득히 피어 있는 풀과 꽃들을 보면서 언제쯤 나는 저 생명들을 거침없이 그려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이름 없는 풀들과 꽃들이 지나온 시간을 품고 원천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겨우 한 점 그렸습니다. 오로시 찰나의 느낌을 그리고 싶어 밑그림 없이 그렸는데 정작 그리다보니 내내 내안의 생각을 몽땅 끄집어 내어 한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자꾸 빼면서 비우고 가벼워야 하는데 마무리된 그림을 보면 思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온전히 꺼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 않은걸 보니 아마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無에서 형태를 하나씩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形像을 지워가며 아크릴 물감과 호분을 사용하여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本質만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母岳逅庭에 피어 한해를 보낸 그 고단한 여정을 표현해보았습니다.

2019년 11월에 모악후정에서...

안 순 금 (An, Soon-geum)

•전북대학교 미술교육 학 · 석사, 영국 코벤트리 대학 석사 •개인전 3회 : 1997 얼화랑(전주), 2004 The Glass Case, Herbert Art Gallery & Museum (Coventry, UK.), 2005 우진문화공간(전주)
•現)전북회화회 회원 •現) 전라고등학교 재직 •(560-283)전북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100-9 •전화 : 010-2635-6314, 063) 251-4906(직장) •E-mail : f12-4@hanmail.net



소요/2019-12 / 72×53cm / 화선지에 수묵, 2019

작업을 하면서 항상 관심의 대상은 대자연이었다. 그중에서도 산과 숲 그리고 강은 작품의 주된 소재이다. 화면에 펼쳐지는 형상들은 자연에 대한 나의 축적된 이미지로 대상의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함축된 형상의 이미지들로 자연의 장면 장면을 표현하고 조형화하려고 했다, 한 없이 검고 깊은 먹색들과 섬세한 담묵의 운용, 그리고 이들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여백과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대비와 조화는 화면에 나타나는 선들의 번짐과 스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검은 선과 흰 여백의 선들을 반복시킴으로서 단조로울 수 있는 화면에 변화와 긴장감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들은 전통 동양화에서 나타나는 준법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나의 작품상의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들이다.

우리는 보여 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나는 가시적이고 설명되어지는 모습보다는 보여 지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화면에 표현되어지는 형상들은 나에게 연상되어지는 자연의 상징과도 같다. 또한 이러한 단순한 형상들은 직접적인 감흥보다는 상상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먹색이 단순히 검은색이 아니라 모든 색을 포함하듯이 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 함축된 단순한 먹빛 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고 싶다. 먹빛에 스미어 자연 속에 거닐고 그곳에 노닐고 싶다. 제목 소요유는 장자에 나오는 아무런 제약없이 노닐다는 뜻으로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자연속에서 수묵속에서 자유롭게 노닐고 싶은 열망을 담고 있다.

오 송 규 (Oh, Song-gyu)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8회 •단체전 : 2019 북경비엔날레 / 2019 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 2018 몸바이 비엔날레(몸바이/인도) / 2018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 2018 한국화-옛 뜰에 서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문화회관) /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現)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現)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충북미술협회 자문위원 •現) 한국기초조형학회 상임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인경1길 34-8 •전화 : 010-3751-2185, 043)261-2757 •E-mail : sunv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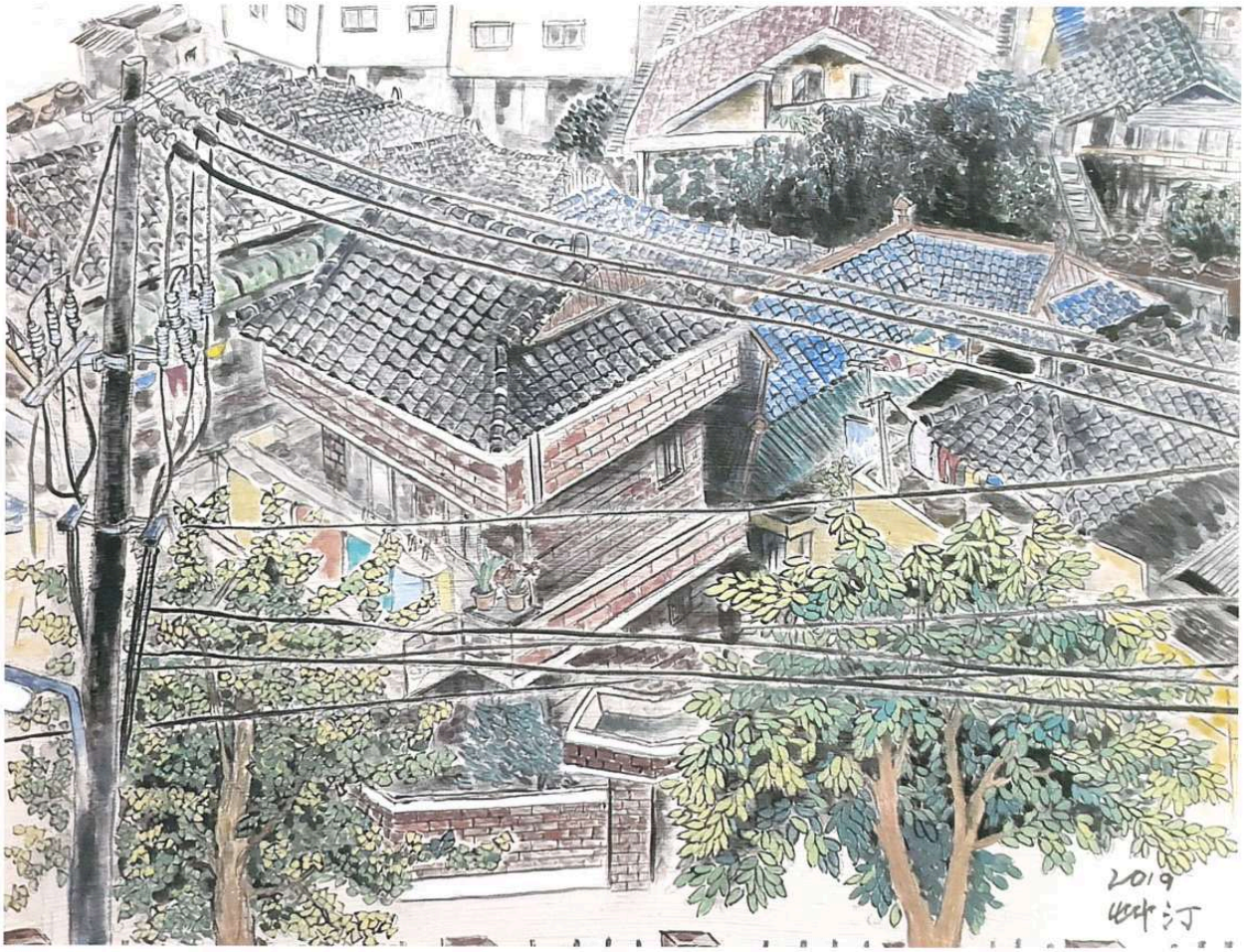


안식 / 70x100cm / 한지에 수묵, 2019

이전의 작업들은 현 시대의 잣대에 맞춰 떠밀려가는 불안의 감정들을 두꺼운 장지에 거친 붓질로 토해냈다면,
이번 작업은 안식을 위한 탐구 과정이다.
나는 이 과정속에서 형태의 집착에서 벗어나 먹의 농담 변화를 통해 고요하면서도 미묘한 역동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유 예 빈 (Yoo, Ye-bin)

•전북대 미술학과 졸 •개인전 1회 •단체전 30여회 참여 •전북회화회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4-6 •전화 : 010-5649-7578
•E-mail : youngbooss@naver.com



동네풍경 / 39×31.5cm / 세라믹, 2019

창 너머로 보이는 동네의 모습
설거지하려고 부엌에 서면 정지해 있는 듯한 동네의 일상과 마주한다.
빨래 줄과 전기 줄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연결해 준다.
장독대와 기와의 모습은 정겹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향기로운 모습들이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본다.
조금씩 변해가는 동네 풍경에서 나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2010년 2012년 전북아트페어(한국소리문화전당)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 & 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남원고등학교 재직 •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산 4길 111-6 •TEL : 자택(T) : 063 547 5896, 직장(T) : 063 630 7923, 010-8004-5895 •E-mail : mjlee0117@hanmail.net



대둔산의 가을 / 40호 / 지본채묵, 2019

시월 대둔산

역시 제 맛 난다
저 투명한 자리로
한 번에 꽃가마를 올려 보내는 행사
대둔(大芚) 산자락이 바쁘다
수중다리로 걸어서 그 끝에 다다르면
마천루에 집을 짓고 사는
누추함이 떨어져 나간 속
빗물에 젖어도
바람에 흔들려도
학이 나는 은하가 펼쳐진다
나이 든 내 곁으로 단풍 하나
깊숙이 박힌다.

이 승 훈 (Lee, Seung-hoon)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4回 •전주대학교 교수작품전 •전북중견청년작가전 •익산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교류전 및 해외전 다수 출품
•시화집, 〈빈들의 소곡〉, 〈달개비 꽃 하늘〉 출간 •미술문화에세이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시와 그림, 감성의 바다〉 출간
•한국미협, 지붕전, 전북회화회, 아트회, 전북수묵화회전, 현대미술드로잉회 등 會員 •現)군산대성중학교 재직 •94658 전북 익산시 배산로 91-9, 303동 607호 (모현3차 현대아파트)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 · P)010-4115-0577 •E-mail : miseg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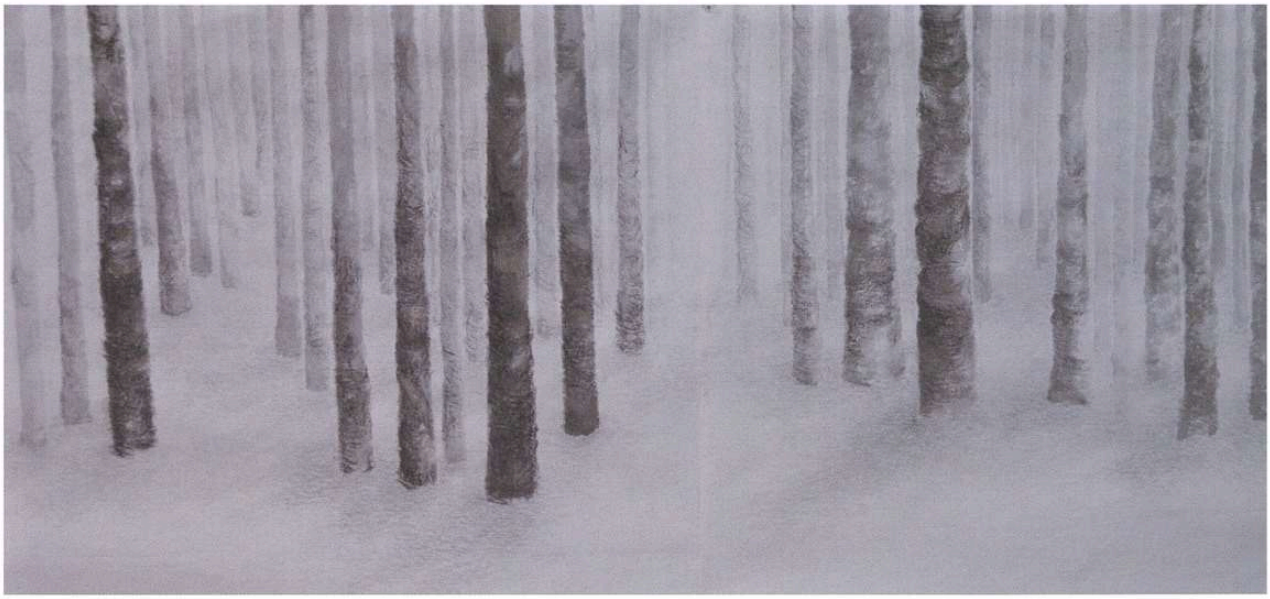
약속 / 60cm×45cm / 종이에 아크릴 혼합재료, 2019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대방과의 신뢰를 다짐해본다

이 우 정 (Lee, Woo-jeo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개인전 4回 •현) 전북회화회, 환경미술협회, 우묵회 회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 현대아파트 101 / 202 •전화 : 010-3299-2221



나무야, 나무야 / 116×48cm / 장지에 수묵채색, 연필, 오일파스텔,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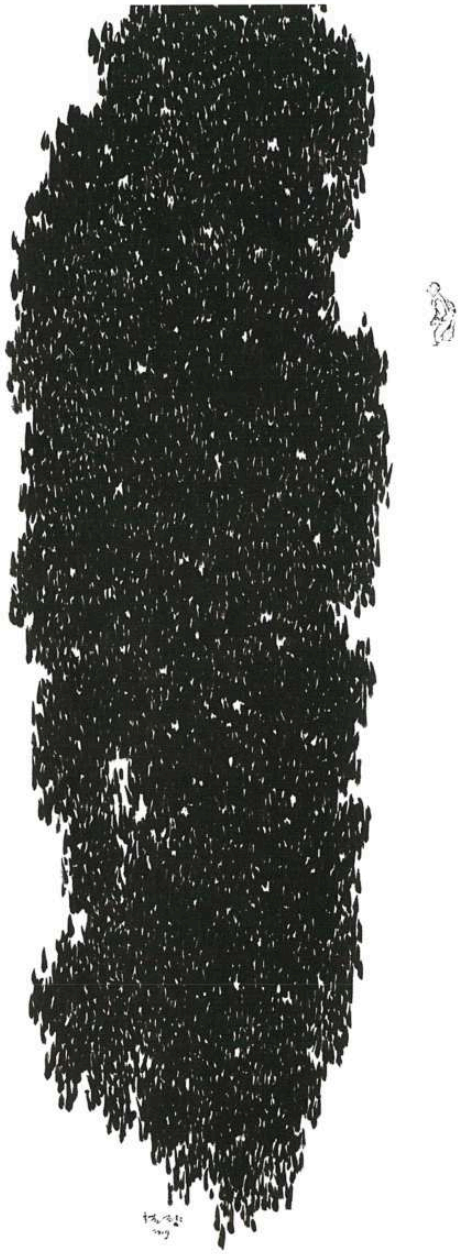
나무야 나무야

이 계절
단순하게 살 라고 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버리자, 비우자 하면서도,
애착 탐착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
아무런 미련 없이
훌 흘 떠나보내는 네가
한없이 부럽다.
하긴 새로운 계절이 오면
너는 또 다시 새로운 옷을 입겠지
허나 나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세월
그래도 버리자 비우자
가볍게 살다 흔적 없이 떠 나자.

2019. 11. 3

이 진 숙 (Lee, Jin-sook)

• 원광대학교 졸 • 개인전 7회 • 초대전 및 그룹전 다수 출품 • 현) 원묵회,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한국미협회원 •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67-17
• 전화 : 010-4605-9876 • E-mail : waltzz@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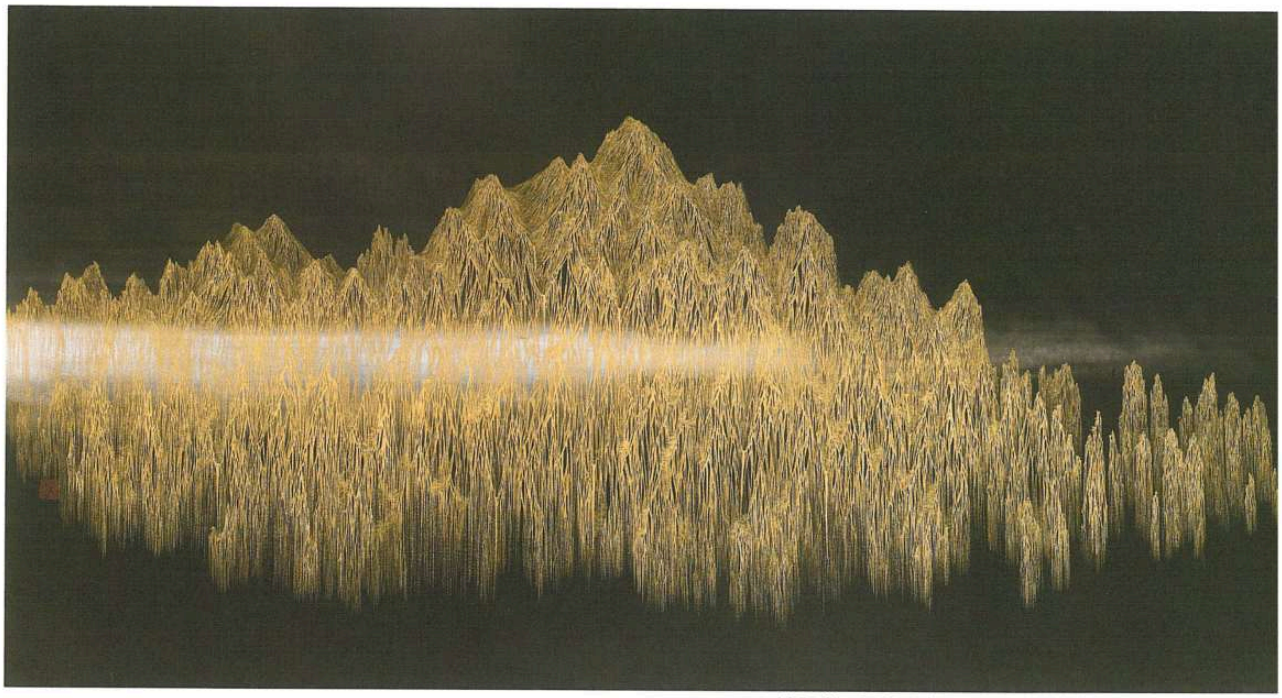
another nature-city / 136x86.5cm / Muk on the paper, 2019

스스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CITY는

이제 "또 다른 자연"이다.

이 철 량 (Lee, Cheol-rya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2018년 개인전 (토포하우스)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198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2 선묘와 표현-현대 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 2001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 2005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도시와 미술(서울시립미술관) • 2011 한국화 재발견전(성남아트센타) • 2012 MANIF SEOUL(한가람미술관)
- 2013 KIAF(Gallery MEE) •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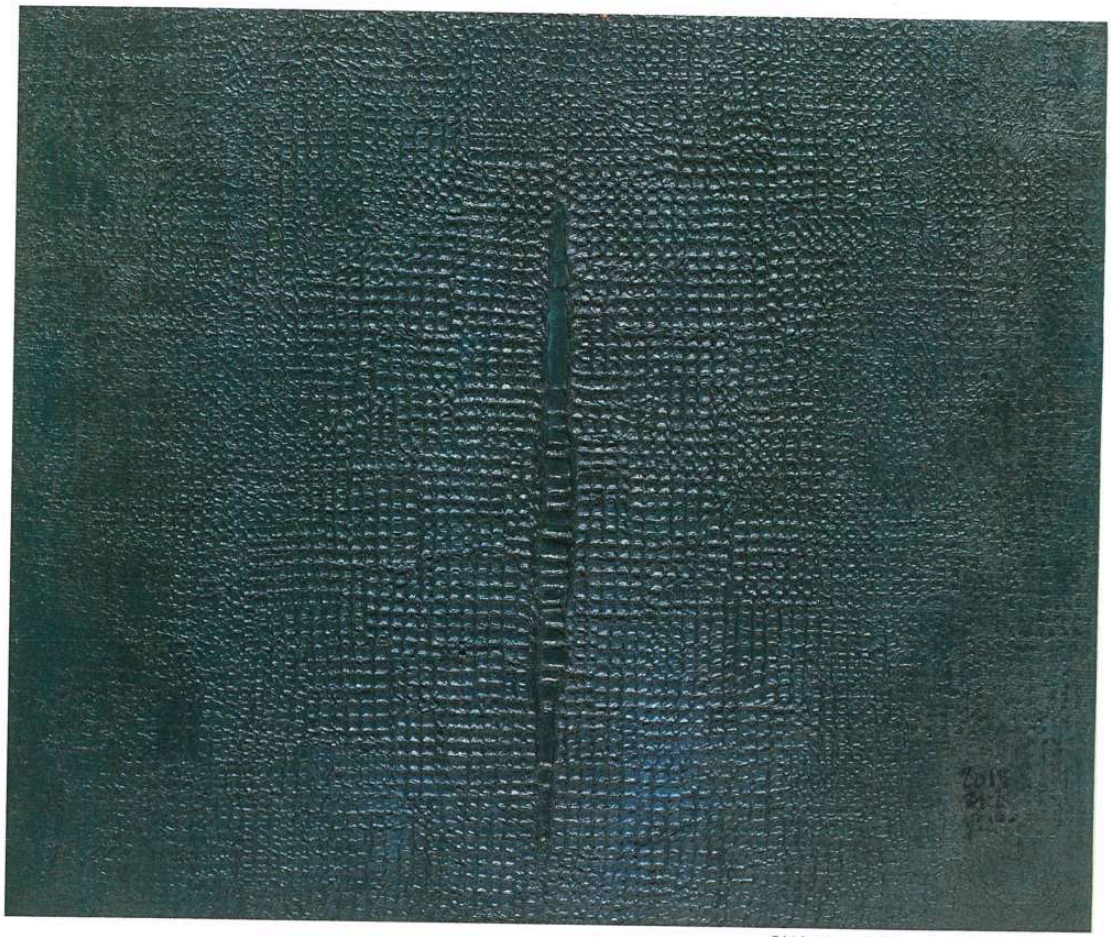
부유하는 몽유금강 / 53×207cm / 화선지에 수묵과 니금, 2019

꿈을 통한 이상세계로의 유희(遊戱)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부유하는 몽유금강〉 시리즈는 단순한 재현의 산수가 아닌,
정신과 이상의 경계에서 새로운 이상경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산봉우리와 곳곳의 계곡은 작가에게 현실과 이상 사이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수직으로 내려진 금빛의 산봉우리는 묵빛을 머금고 공중에 부유 하듯 떠 있다.
이로써 작가가 표현하는 금강산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또 다른 산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금강산의 현실적 감각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영원할 것 같은 몽유금강은 작가에게 안식이며, 사유를 담고 있다.

임 진 성 (Yim, Jin-seo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同대학원 석사, 박사졸업 • 단원미술제, 홍제미술제, 행주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교과서 작품수록-교학사2012 〈고등학교 미술창작〉56p, 두산동아 2014 〈중학교 미술〉 83p •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중국하얏트리젠시, 김제시청사, 부여시청, STAR CRUISE, 서울아산병원, 수원시립미술관, 외교부장관공관, 이화공영, 전북도립미술관, 충북대학병원, 신성엔지니어링, 기타 국내외 개인소장 다수 • 개인전 : 한국, 중국, 캐나다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 26회 • 단체전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예술문화회관), 한국근현대산수화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현대한국화'포지션전'(강릉시립미술관/강릉), 1980년대와한국미술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안견회화정신전(세종문화회관/서울), 11인명론가가추천하는〈오늘의진경전〉(겸재정선기념관/서울) 등 250여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7길28(101-1503) • E-mail : yjs5994@hanmail.net • Cp : 010-3727-5994



현상 / 77.5×65.5cm / 수제한지, 옻칠, 2018

非有非無 모든 像은 있는

非有非無

모든 像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사이이다. 그림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 느낌으로 나타난다. 나의 작업에는 광기가 숨겨져 있다. 현상에 따라서는 아주 정적인 상태나 반복적인 타성으로 보여질지 모르나, 보여지지 않는 느낌에서는 숨은 광기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작업에 미친듯 함몰하는 순간 작업이 나에게 중심이 되고 영감이 되어 전체적 아우라로 나타난다. 가끔은 힘든 작업을 사서 한다고도 생각되나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어지는 작품의 뒷맛으로 나를 이끌게 하고있다.

중도에 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임 효 (Rim, Hyo)

• 개인전 24회 서울, 부산, 전주, 미국 L.A , 독일 메켈렌부르크 •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국립 현대미술관개관기획 ,과천) • 서울 미술제,(서울 시립미술관)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관기념(한가람 미술관) •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 초대전 및 단체전 500여회 • 국제전 : 스위스 바젤, 중국 상하이, 터키 이스탄블, 미국 산타폐. 프랑스 파리, 중남미 피아, 스위스 취리히, 싱가포르, 한국 아트페어 등 참가 • 수상경력 : 7회 동아미술상, 13회 선미술상 • 주요 콜렉션 : UN ESCAP,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전주박물관, 서울 시립미술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한국은행, 한솔문화재단, 금호생명, SK연수원 고은 미술관, 기당 미술관, 서울 삼성 의료원 • 예H.P : 010-5282-6504 • www.rimhyo.co.kr rh650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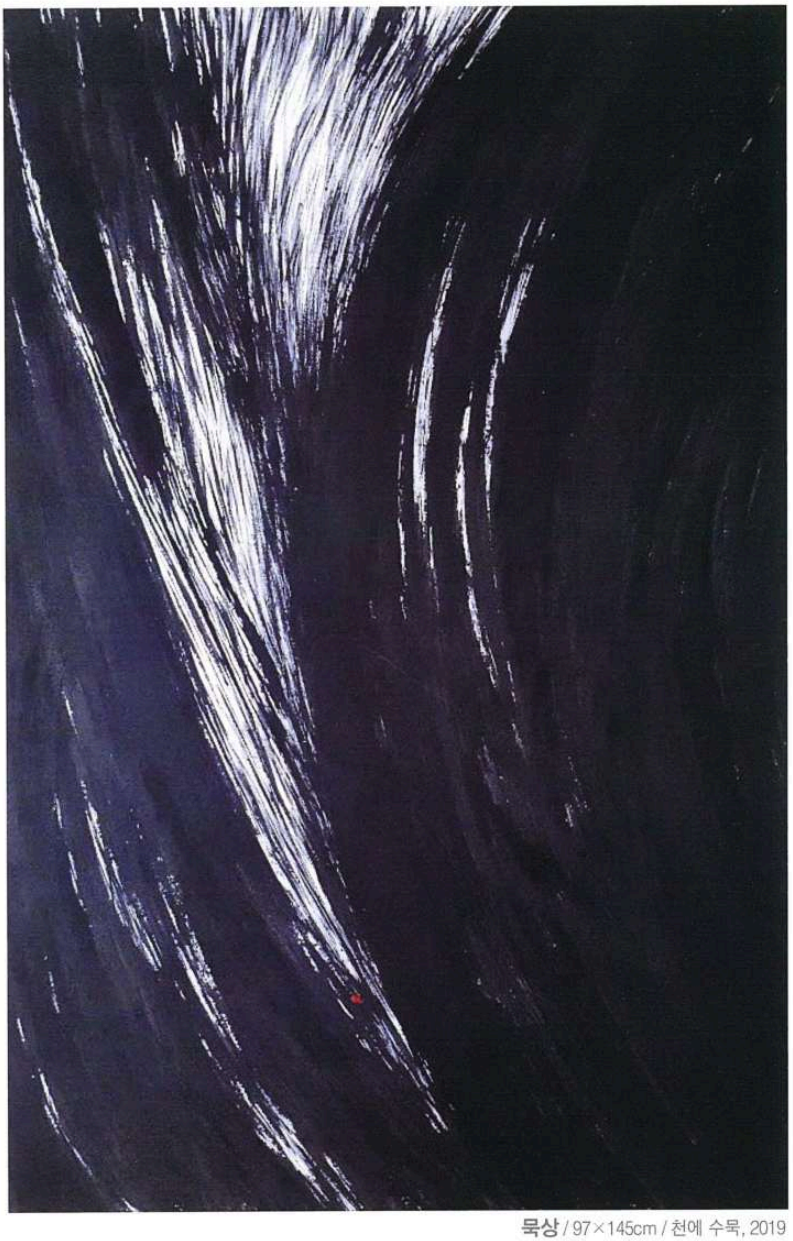
Family Landscape-Blue / 52×52cm / 아크릴보드에 아크릴물감, 샌딩, 2019

Family Landscape

나에게 산수(山水)는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이라 생각했다. 그 이유는 산은 공간적인 측면을, 그리고 물은 시간적인 부분을 담아낸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시대를 담아내는 산수에 대한 작업과 고민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의 가족사진이 마치 하나의 산수처럼 다가왔다. 거창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평범한 나의 가족의 모습은 산수의 시간과 공간적 요소가 사진 한 컷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을 투명한 재료인 아크릴 보드와 비닐에 여러 겹의 흔적들로 표현하였다. 계획이든, 우연이든 겹겹이 그려지는 선에서 가족의 모습이 하나의 풍경이 나타나진다.

임 희 성 (Yim, Hee-seong)

• 2008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 졸업 /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 개인전 : 2019 이 작가를 주목하라, 교동미술관, 전주/ 2018 Family Landscape, 갤러리 밈, 서울 / 2014 Playing with Landscape,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2011 Transformed The Landscape,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0 깎여진 산수, 샘터 갤러리, 서울 / 2009 Back to the Present, 관훈 갤러리, 서울 • 단체전 : 40여회 • 수상 및 지원 : 2019 이 작가를 주목하라 작가선정, 교동미술관/ 2018 신진작가 지원금 선정, 전라북도 문화 관광 재단/2016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북도립미술관 / 2013 송파 예술창작소, 입주작가, 송파구청 / 2012 가송예술상, 동화약품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반6길 26-5 엘르디움 A 102/1004 • H.P : 010-4656-7191 • iart81@naver.com • www.hiseong.com



묵상 / 97×145cm / 천에 수묵, 2019

밝음이 가득해질 무렵이면 어둠이 내려오고

어둠이 가득해져야 비로소 밝음이 찾아오네.

정 미 현 (Jeong, Mee-hyun)

•개인전 7회 •단체전 및 초대전 120여회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현) 상관중학교 재직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응암길 197-13 •전화 : 010-3682-3560 •E-mail : hyun3560@hanmail.net



아리랑18-흥겨운 날4 / 80×100cm / 천에 채색(단청 아크릴 오일바), 2018

살다보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별 거 아니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것이 다 별것이기도 하다.

소중한 것은 사사로운 것 속에 웅크리고 있다.

신명이나 해학, 흥이나 한 같은 것들도 우리들 삶 속에 숨어 쉽게 실체를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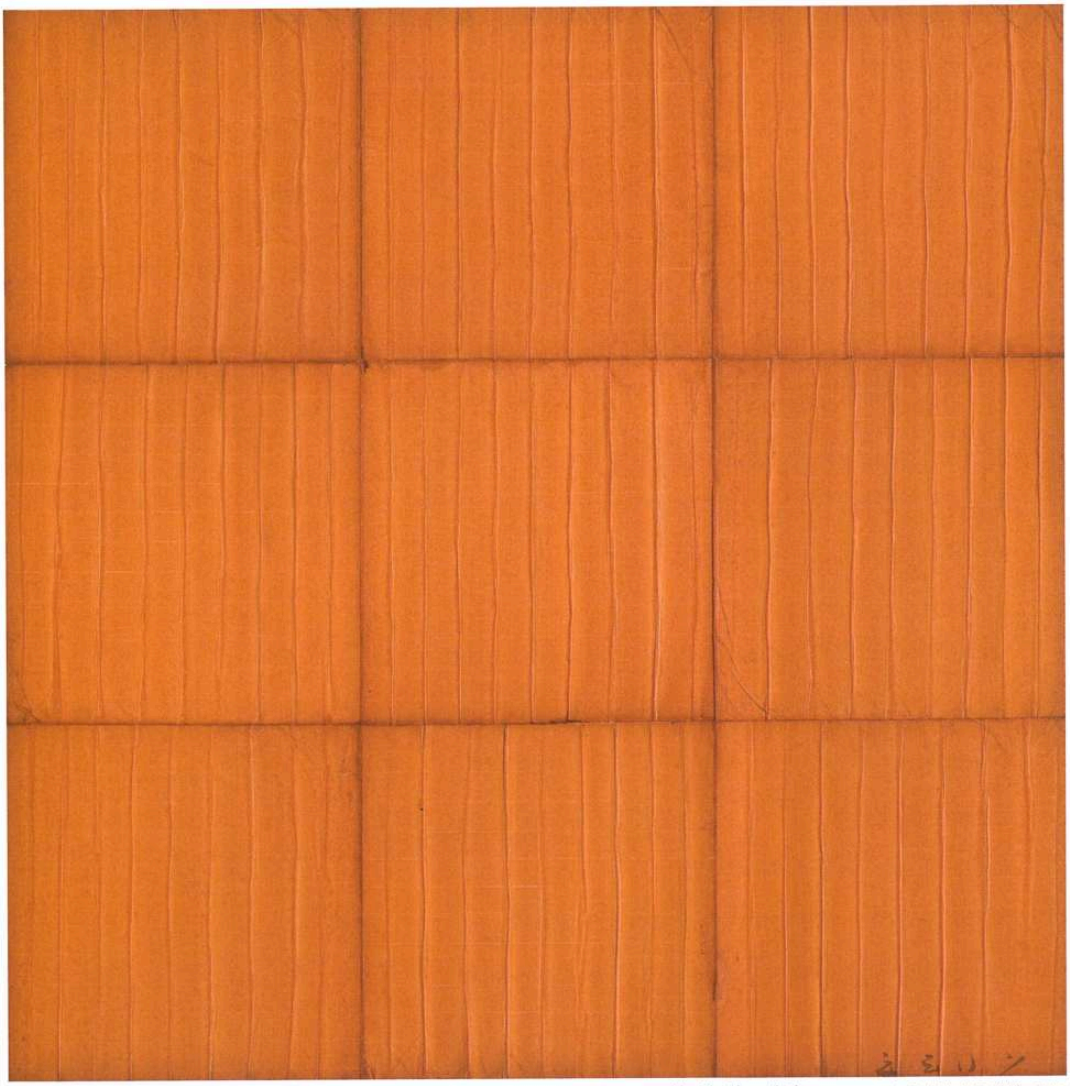
흥이나 해학 같은 것을 자주 생각하는 요즘 내가 좋아하는 소나무 숲으로 이것저것을 불러내 논다.

그러면 소나무들은 덩실거리고 저 아스라한 옛것들이 또는 오늘의 것들이 주춤주춤 걸어 나오는 것이다.

네 건 무어냐 내 건 무어냐, 뭐 그런 게 대수냐며 몸을 흔드는 것이다.

조 병 완 (Jo, Byong-wan)

•1956년 전북 고창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1회(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고양어울림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등)
•단체전 수백 회 발표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e메일 corejo2001@daum.net • H.P : 010-5387-4587



선. 색. 면 – 사이 / 70×70cm / 한지에 수묵채색, 2015

얇은 화선지를 접어 채색하고 펼침으로서 나의 작업은 시작된다. 작업은 선(線)적인 표현이 주조를 이루고, 선이 주는 다양한 변화, 혹은 호흡과 같은 일상의 연속을 채집된 경험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선·색·면과 같은 표현의 기본적인 결합,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나타나는 일상적인 틈새는 또 다른 통로를 의미한다. 즉 틈과 틈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의 사이는 미지의 기류이다. 이러한 기류의 탐문이 작업에 몰입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최 창 봉 (Choi, Chang-bo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同 대학원 졸업 • 개인전 12회(한국, 일본)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우수상(과천 / 현대미술관) • macro.micro (공화랑)
• 회화2000 (동덕아트갤러리) • 2018 회화2000 – 봄을열다 – (갤러리 한옥) • 2018 국제수묵 비엔날레(목포 문화예술회관) 및 단체전 160여회
• 현재 : 한국미술협회, 회화2000 회원 • 현재 :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충북대, 선화예고 출강 • Email – mookgrim@hanmail.net • H.P : 010–3683–8637

편.집.후.기

함박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설경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현대의 허울 좋은 고독의 광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사람은 사람의 자연을 가지고 자기를 잃지 않은 인간의 향수를 지닌
자연의 언어와 표정을 상실하지 않은
회화회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삶의 목적이나 삶의 빛깔을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만들어 가며 쓸쓸한 현대를 소화해 내며
누구보다도 우수하게 일을 처리해 내고 있는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맛보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회화회 회원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 속에서 풍성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계획

- 1월 동계 MT
- 5월 회화회 세미나
- 하계 MT
- 11월 정기전
- 12월 총회

[redacted]

방정엽 [redacted]
송태정 [redacted]
송화정 [redacted]
안순금 [redacted]
오송규 [redacted]
유예빈 [redacted]
윤대라 [redacted]
이형자 [redacted]
이승훈 [redacted]
이우정 [redacted]
이진숙 [redacted]
이철량 [redacted]
이한배 [redacted]
임진성 [redacted]
임 효 [redacted]
임희성 [redacted]
정미현 [redacted]
조병완 [redacted]
최창봉 [redacted]

전북회화

2019년 통권 제26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박지예
편집위원 박지예, 송태정, 송화정, 유예빈, 임희성
전북회화 2019년 통권 26호
발행일 | 2019. 12. 10
[redacted]
기획, 제작 | 프린팅세븐 T. 287-91[redacted]

2019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